

# 경남 진주지역의 목활자본 문집 간행양상\*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ation of Collections of Works Printed by Wooden Movable-type in Jinju Area, Gyeongnam Province Korea

송 정 숙 (Song, Jung-Sook)\*\*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맺음말 |
| 2. 목활자본 문집 간행의 인문지리적 배경   | <참고문헌> |
| 3. 진주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 경향 분석 |        |

## < 초 록 >

이 연구는 경상남도 진주지역에서 간행된 60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대상으로 문집 간행의 구체적인 양상과 출판문화사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문집의 유형, 저자사항, 간행사항, 형태사항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1) 목활자본 문집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문집은 65%, 유집과 실기가 35%로 나타났다. 57종(95%)이 1인의 시문으로 이루어진 별집이고, 시집은 1종뿐이었다.

2) 문집 저자 57인의 출생연도를 보면,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저자가 계속 증가하여 18세기 출생자가 13인(23%), 19세기 출생자가 25인(44%)으로 18세기 이후 출생자가 38인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한다.

3) 문집 저자 57인의 성관(姓貫)을 분석하면, 문집을 간행한 27개 성씨 가운데 진양하씨가 가장 많은 13종의 문집을 간행하였고, 다음은 재령이씨가 7종, 진양정씨와 해주정씨가 각 4종, 김해허씨가 3종, 밀양박씨·함양박씨·전주최씨가 각 2종, 능성구씨를 포함한 18개 성씨가 각 1종씩 발행하였다.

4)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년을 분석하면, 189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60년 동안 활발히 간행되다가 1950년대부터 대폭 줄어들었다. 189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60년 동안에 전체 60종의 문집 가운데 약 82%에 달하는 49종이 간행된 것을 볼 때, 진주지역에서는 조선조 말기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사회적 격변기에 전통지식인 집단이 자기 문중의 학문을 선양하고 전통적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목활자본 문집을 활발하게 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5) 저자 사후 문집 간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분석하면, 문집의 38%가 저자 사후 50년 이내에 간행되었다. 유형별로 보면, 문집과 유집은 사후 10년 이내에 가장 많이 간행되었지만, 실기는 저자 사후 250년이 지나서 간행되었다.

6) 문집의 간행은 현조의 제향공간인 재실이나 선현 추모와 선현의 학습·교육공간이던 누정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이는 목활자본 문집 간행이 혈연공동체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해 준다.

7) 문집 권말의 판권기를 통해 목활자본의 인쇄자, 즉 각수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는데, 3명의 각수에 대한 정보를 4종의 문집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8) 목활자본 문집의 권책수를 보면, 53종(88%)이 1-2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10책 이상의 거질은 진주 출신이 아닌 윤희의 『백호선생문집』이 유일한 것으로 미루어 진주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의 저자는 전국 수준의 대학자라기보다는 주로 지역에서 활동한 선비라고 할 수 있다.

9) 목활자본 문집의 판식을 분석하니, 1800년대에는 사주단변, 유계, 10행 20자, 상하내향이엄화문어미가 다수이고, 1900년대 전반기에는 사주쌍변과 사주단변이 혼재하다가 1900년대 후반기에는 사주쌍변이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

要語: 목활자본, 문집 간행, 경상남도 진주시, 목활자, 인쇄 출판의 역사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2A01025938).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songjs@pusan.ac.kr)

투고일: 2019년 2월 20일 최초심사일: 2019년 3월 7일 게재확정일: 2019년 3월 22일

서지학연구, 제77집, 251-286,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77.251]

<ABSTRACT>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som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60 volumes of collections of works printed by wooden movable-type at Jinju area in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author analyzed type of collections of works, their birth year and the family name of the author, the place and the year, and the publisher of the publication, and the printers of these different 60 kinds of the collections of work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collections of works demonstrate their forefathers' academic competencies. The types of collections of works were divided into 3 types, Munjip (文集), Yujip (遺集), and Silgi (實記). Of the collections of works 65% were Munjip. The authors were local intellectuals. Of these authors 44% of authors were born in the 19th century. Twenty seven lineage groups published collections of works at Jinju area. Sixty seven percent of the publications were published from 1890 to 1949. In terms of place, 82% of the collections of works were published in the worshipping halls for their ancestors. Thirty eight percent of the collections of works were published within 50 years after the author had died.

Key words: wooden movable-type printing, printing and publishing of collections of works,  
Jinju area, Gyeongsangnam-do Province, history of printing and publishing

## 1. 머리말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지역의 정체성, 즉 로컬리티는 지역의 축제를 통해 그 단면을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 축제를 통해 지역민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기리고자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진주의 축제에는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진주논개제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모든 축제가 임진왜란과 관련되어 있다. 진주 남강에 등을 띄우는 유등행사는 진주대첩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sup>1)</sup>, 개천예술제의 주요행사 가운데 종야축제(진주대첩 기념 한마당)<sup>2)</sup>와 진주대첩 재현행사, 부대행사로 경상우병영 체험 행사(진주성 특별체험 행사)<sup>3)</sup>도 진주대첩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진주논개제는 임진왜란 때 진주에서 순국한 논개를 비롯한 7만 민·관·군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행사이다. 이로 볼 때 진주의 도시 정체성을 형성하는 큰 사건은 임진왜란에서의 제1·2차 진주성 전투였음을 알 수 있다. 1592년의 제1차 진주성 전투는 김시민 중심의 승전인 진주대첩이고, 1593년의 2차 진주성 전투는 논개를 비롯한 7만명의 민·관·군이 순국한 패전이다.

조상들이 남긴 유산 중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아 보호해야 할 것으로 지정한 진주의 문화재 가운데 불교 관련 문화재와 고분을 제외하면, 진주성, 김시민장군 전공비, 축석정 충단비, 쌍충사적비, 영남 포정사, 북장대, 창렬사, 의기사, 축석루, 의암, 김해김씨 비각, 진주향교, 진양부원군 신도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임진왜란 관련 문화재는 진주성, 김시민장군 전공비, 축석정 충단비, 쌍충사적비, 북장대, 창렬사, 의기사, 축석루, 의암 등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처럼 임진왜란은 진주지역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진주성 내에 위치한 국립진주박물관이 임진왜란 특화 박물관이라는

1) 진주 유등의 유래: 진주 남강에 등(燈)을 띄우는 유등(流燈) 행사는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진주대첩(晉州大捷)에 기원을 두고 있다. 임진년(1592) 10월, 진주목사 김시민 장군을 비롯한 3,800여명의 수성군(守城軍)과 진주성을 침공한 2만 여명의 왜군이 벌인 제1차 진주성전투는 무려 10일간 이어졌다.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진주성 수성군이 칠흠같이 어두운 밤에 남강에 유등(流燈)을 띄워, 남강을 건너려는 왜군을 저지하는 군사전술로, 한편으로는 성 밖의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수단으로 사용했다. 계사년(1593) 6월, 제2차 진주성전투에서는 오로지 구국(救國)의 일념으로 왜군과 항전한 7만명의 민·관·군이 순국하면서 진주성(晉州城)은 임진왜란 국난극복의 현장이 된다. 후일, 진주사람들은 임진·계사년(壬辰癸巳年) 국난극복에 몸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남강에 유등(流燈)을 띄웠고, 이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 대한민국 글로벌 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晉州南江流燈祝祭)로 자리잡았다.

진주시청, “진주남강유등축제,” <[http://yudeung.com/sub\\_1\\_1](http://yudeung.com/sub_1_1)>, 2019.1.8. 접속.

2) 종야축제(진주대첩 기념 한마당): 임진왜란 발발 426주년을 맞이하여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승리한 진주대첩의 역사적 의미와 호국정신을 기리고 축하 하는 한마당 잔치.

진주시청, “개천예술제,” <[http://www.gaecheonart.com/page.php?id=sub2\\_2d](http://www.gaecheonart.com/page.php?id=sub2_2d)>, 2019.1.8. 접속.

3) 진주는 조선시대 경상우도의 병영이 존재하는 경상우병영으로서 병마절도사가 진주성에 상주하며 경상우도군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이러한 군사 요충지인 진주성에서 조선시대 진주성을 지켰던 수성중군영 군사들의 훈련의 일환으로 행했던 곤봉, 등패, 주력, 진법 등의 병영체험을 통해 진주성을 찾은 시민 및 국내외의 관람객들이 우리의 우수한 군례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이 연구에서는 경상남도에서 산청, 함천에 이어 세번째로 목활자본 문집 간행이 활발했던 진주에서 선조의 학문과 행적이 불후(不朽)하기를 소망하여 편찬, 간행한 목활자본 문집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진주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과 문집의 저자, 목활자본 문집 간행의 특징과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1.2 연구 대상과 방법

“살아서는 7척의 몸뚱이지마는 죽어서는 겨우 관 하나 들어갈 만한 뭇자리만 있으면 족하다. 오직 덕업을 쌓아 이름을 드날리는 것으로 불후(不朽)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책을 짓는 것이 최선이다.”

중국 위(魏)나라 조조(曹操, 155-220)의 아들로 위나라의 문제(文帝)가 되는 조비(曹丕, 187-226)는 인생의 덧없음을 느껴 자신이 어떻게 불후함을 실현할 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저술에 많은 힘을 쏟았다고 한다.<sup>4)</sup> 조비가 책을 지어 길이 전함으로써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을 도모했듯이, 우리의 선조들도 조상이 남긴 시문과 행적을 모아 문집을 편찬, 간행함으로써 조상의 이름이 길이 전해지기를 소망했다.

이 연구에서는 경남지방에서 산청, 함천지역에 이어 세번째로 목활자본 문집 간행이 활발했던 진주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진주 지역에서는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고자 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① 진주지역에서 기억하고자 했던 인물은 누구인가? ② 진주지역에서 목활자로 인출된 문집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가? ③ 문집의 저자는 누구이며, 성관은 무엇이며, 어느 시기에 활동했으며, 그들의 학문적·정치적 성향은 어떠한가? ④ 목활자본 문집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간행되었으며, 저자 사후 몇 년 만에 간행되었는가? ⑤ 목활자본 문집의 권책수는 어떠한가, 판식은 어떠한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진주의 역사, 대표적 인물과 서원·책판 등을 통해 목활자본 문집 간행의 인문지리적 배경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진주지역의 목활자본 문집 간행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진주지역 간행 목활자본을 추출하여 서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문집의 유형, 서명·저자명·저자의 생몰년·성씨와 관향, 학문적 사승관계 등의 서명저자사항, 간행년·저자 사후 문집간행 소요기간·발행소(처)·인쇄자 등의 간행사항, 권책수·사주(四周)의 종류·광곽의 크기·항자수·어미와 판구·책크기 등의 형태사항, 서·발문 작성자와 간기 등의 주기사항, 출처 등이 포함된다.<sup>5)</sup> 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하여 문집의 유형, 서명저자사항, 간행사항, 형태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4) 이노우에 스스무 지음, 이동철, 장원철, 이정희 옮김, 『중국출판문화사』 (서울: 민음사, 2013), 66.

5) 송정숙, “경남 함천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양상,” 『書誌學研究』 제73집(2018. 3), 207 참조.

## 2. 목활자본 문집 간행의 인문지리적 배경

### 2.1 진주의 역사

진주가 처음 생겨서 지나온 발자취를 보면, 본래 백제에서 거열성(居列城)이라는 이름으로 생겨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타성(居陀城)이라고 불렸다. 신라가 문무왕(文武王) 때 진주를 빼앗아서 주(州)를 설치한 뒤 신문왕(神文王) 때에는 거타주를 분할하여 진주총관(晉州摠管)을 설치하였고, 경덕왕(景德王) 때에는 이름을 강주(康州)라 고쳤다. 혜공왕(惠恭王) 때에 다시 청주(靑州)라 고쳤고, 고려 태조(太祖) 때에는 또 강주라 고쳤다. 983년(성종 2)에는 목(牧)을 설치하였다가 995년(성종 14)에 진주(晉州)라 고쳐서 절도사를 설치하였다. 현종(顯宗) 때에 안무사(安撫使)로 고쳤다가, 뒤에 8목(牧)의 하나가 되었다.

조선조에서는 태조가 현비(顯妃: 康氏)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진양 대도호부(晉陽大都護府)로 승격시켰는데, 태종(太宗) 때에 진주로 명칭을 고쳐서 목으로 만들었다. 세조(世祖) 때에 진(鎭)을 설치하였다. 진주목 산하에 합천(陝川)·초계(草溪)·함양(咸陽)·곤양(昆陽)·거창(居昌)의 다섯 군, 사천(泗川)·남해(南海)·삼가(三嘉)·의령(宜寧)·하동(河東)·산음(山陰)·안음(安陰)·단성(丹城)의 여덟 현으로 진주목은 경상우도의 중심도시였다.<sup>6)</sup>

1592년(선조 25)에 합포영(合浦營)이 임란으로 불타 없어지자 체찰사(體察使) 이덕형(李德馨)이 축석성(矗石城)의 형세가 험하고 튼튼하므로 진영(鎭營)을 진주로 옮길 것을 조정에 건의하여 1604년(선조 37)에 병영을 진주로 옮겨 절도사가 목사를 겸직하게 하였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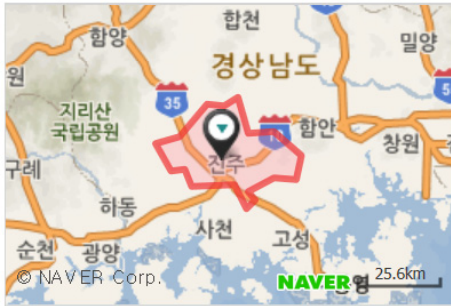
1895년(고종 32)에 8도의 부·목·군·현을 폐하고 온 나라를 23부로 나누었다. 경상도는 진주·동래·대구·안동부에 관찰사를 두고, 모든 군을 나누었다. 진주부에는 진주·고성·진해·사천·곤양·남해·단성·산청·하동·거창·안의·함양·합천·초계·삼가·의령·칠원·함안·창원·웅천·김해 등 21개군이 배속되었다. 경상남도도 지금의 행정 구역으로 확정된 것은 조선조 말엽인 1896년(고종 33, 건양 원년) 8월 4일 칙령 제36호로 지방제도 관제 등을 개정하여 종전 23부를 13도로 고쳐 둘 때 경상도를 남·북 2개 도로 나누면서부터였다.

1896년 3월에 13도제를 실시하여, 경상도는 경상남·북도로 분리하여 진주를 경상남도 도청소재지로, 대구를 경상북도 도청소재지로 하였다. 경상남도는 1부(동래부) 29개 군으로 출발하였다. 1925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는 경남도청을 부산으로 이전하였고, 1939년 1월 1일에 진주읍이 진주부로 승격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 도농복합시설치령에 따라 진주시와 진양군이 진주시로 통합하였다.<sup>8)</sup>

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0, 慶尙道 晉州牧.

7) 진주문화원, 『조선환여승람(朝鮮輿輿勝覽): 진주』 (진주: 진주문화원, 2006), 59-60.

8) 경남도청, “경남소개>경남의 역사>유래·연혁”, 경남도청 홈페이지,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06003001000](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06003001000), 2018.8.8. 접속.



<그림 1> 진주와 인근 지역

네이버지도인 <그림 1>에서 보듯이, 진주시는 동쪽으로는 창원시, 함안군, 서쪽으로는 하동군, 남쪽으로는 사천시와 고성군, 북쪽으로는 산청군과 의령군이 접해 있는 서부 경남지역의 중심 도시이다.<sup>9)</sup>

하연(河演, 1376-1453) 향교 사교당기에 의하면, “진주 고을은 지리산의 영기와 남해의 정기가 빛고 화합하여, 토지의 비옥함과 인물의 변화함이 다른 고을과 견줄 바가 아니다.”<sup>10)</sup>라고 하였다.

## 2.2 진주의 인물

진주는 예로부터 “조정인재의 반은 영남에 있고, 영남인재의 반은 진주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인재가 많았으며, 특히 충신이 많기로 이름난 고장이다. 진주의 주요 인물로 고려조의 하공진, 강민첨, 조선조의 하륜, 정분, 김시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전기의 문신 하공진(河拱辰, ?-1011)의 본관은 진주이다. 1010년(현종 원년) 현종이 거란군(契丹軍)을 피해서 남쪽으로 간 다음, 하공진이 표문을 받들고 거란 진영에 가서 군사를 철수하도록 요청하였다. 거란 임금인 이를 허락하고 대신에 하공진을 거란에 볼모로 가게 되었다. 볼모가 된 후에도 고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도모하였으나 겉으로는 충성을 표시하니, 거란 임금이 매우 총애하였다. 하공진은 좋은 말을 많이 사서 동쪽으로 나오는 길에다 두고서 돌아올 계획을 꾸몄다. 그의 계획이 누설되어 거란 임금이 하공진을 국문하니, 공진이 사실대로 대답하고, 또 “신이 본국에 대하여 감히 두 마음을 갖지 못하는 바, 살아서 대국(거란)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거란 임금이 이를 의롭게 여겨서 용서하고, 절개를 고쳐 자기에게 충성하라 하였으나,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아 죽임을 당하였다.<sup>11)</sup> 상서공부시랑(尙書工部侍郎)에 추증되었다.

고려조의 장군인 강민첨(姜民瞻, 963-1021)의 본관은 진주이다. 목종(穆宗) 때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지기(志氣)가 있고 과감하여 주로 전공(戰功)을 통하여 입신하였다. 1018년 거란(契丹)의 소배압(蕭排押)이 10만 대군으로 쳐들어오자 평장사(平章事) 강감찬(姜邯贊)의 부장(副將)으로 출전하여 흥화진(興化鎭)에서 격파하였으며, 거란군이 바로 개경(開京)으로 쳐들어오자 이를 추격하여 자산(慈山)에서 크게 이겼다. 그 공으로 1019년 응양상장군 주국 우산기상시(鷹揚上將軍 柱國 右散騎常侍)에 올라, 추성치리 익대공신(推誠致理翊戴功臣)에 녹훈되었다. 시호는 은열(殷烈)이다.<sup>12)</sup>

9) 진주시청, “(진주시의) 자연환경,” 진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inju.go.kr/03about/07\\_05.jsp](http://www.jinju.go.kr/03about/07_05.jsp)>, 2019.1.29. 접속.  
 10) 『新增東國輿地勝覽』卷30, 慶尙道 晉州牧.  
 11) 『新增東國輿地勝覽』卷30, 慶尙道 晉州牧. ; 진주문화원(2006), 184.  
 12)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강민첨,” 디지털진주문화대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631385&cid=51942&categoryId=54837>>, 2018.1.6. 접속.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인 하륜(河崙, 1347-1416)의 본관은 진주, 호는 호정(浩亭)이며, 하공진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순흥부사를 지낸 하윤린(河允潾)이다. 1365년(공민왕 14) 문과에 급제하였다. 조선 초 이방원(李芳遠)을 도와 왕위에 오르게 하였고 왕권강화의 기틀을 다지는 데 공헌하였다. 1398년 충청도도관찰사로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와 공을 세우고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승진, 정사공신(定社功臣) 1등에 책록되고 진산군(晉山君)에 봉해졌다. 1400년(정종 2) 제2차 왕자의 난에도 이방원을 도왔고, 이방원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권력의 실세로 군림했다. 그해 태종(이방원)의 즉위로 좌명공신(佐命功臣) 1등에 책록되고, 관직은 영의정에 이르렀다. 이침과 함께 『동국사략(東國史略)』을 편수하였고, 『태조실록(太祖實錄)』 편찬을 지휘하였다. 문집에 『호정집(浩亭集)』이 있다. 태종묘정(太宗廟庭)에 배향되었다.<sup>13)</sup>

조선전기기의 문신 정분(鄭芬, ?-1454)의 본관은 진주(晉州), 호는 애일당(愛日堂)이며,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정이오(鄭以吾)의 아들이다. 1416년(태종 16)에 문과에 급제한 이후 이조좌랑·승문원교리 등을 역임하였고, 1452년(단종 즉위년) 김종서(金宗瑞)의 천거로 우의정에 올랐다. 이듬해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주도한 계유정난으로, 문종의 유명(遺命)을 받아 단종을 보필하던 황보인(皇甫仁)·김종서 등이 주살되자 정분도 낙안(樂安)에 안치되었다. 곧 고신(告身)을 추탈당한 뒤 낙안의 관노가 되었으며, 이후 대신과 대간의 빈번한 청죄(請罪)가 계속되었지만, 1년 여간 목숨을 보존하다가 1454년 사사(賜死)되었다. 문신이지만 토목에 조예가 깊어, 세종 말에서 단종 초에 걸쳐 궁궐 조성·축성, 현릉(顯陵: 문종의 능) 조성 등에 공헌이 있었다. 1746년(영조 22) 김종서·황보인과 함께 관작이 복구되었고, 충장(忠莊)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sup>14)</sup>

조선중기의 무신 김시민(金時敏, 1554-1592)의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충청도 목천(木川, 현 천안시 병천면 가진리) 출생으로 아버지는 지평 김충갑(金忠甲)이다. 1578년(선조 11) 무과에 급제하여 군기시에 입사하였으며, 1581년(선조 14)에는 부평부사가 되었으나 구황(救荒)에 전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1583년 이탕개(尼湯介)의 난 때 도순찰사 정언신(鄭彦信)의 막하 장수로 출정하여 공을 세웠다. 그 뒤 훈련원판관이 되었으나 군사에 관한 건의가 채택되지 않자 사직하였다. 1591년 진주판관이 되었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목사 이경(李暎)과 함께 지리산으로 피하였다가 목사가 병사하자 초유사(招諭使) 김성일(金誠一)의 명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여 성지(城池)를 수축하고 무기를 갖추었다. 그 공로가 인정되어 진주목사가 되었으며, 계속해서 사천(泗川), 고성(固城), 진해(鎭海) 등지에서 왜적을 격파하였다.<sup>15)</sup> 1592년 10월 6일에 왜적이 진주성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2만 대군이 성을 포위하자 3,800명의 병력으로 7일간의 공방전을 벌여 적을 물리쳤으나 이 싸움에서 이마에 탄환을 맞고 며칠 뒤 세상을 떠났다. 1604년에 선무공신 2등과 영의정에 봉해졌다. 시호는 충무(忠武)이다.<sup>16)</sup>

위 5인의 인물 중 진양하씨의 하공진과 하륜, 진양강씨의 강민첨, 진양정씨의 정분 등 4인은 진주

13) “하륜(河崙),” 『두산백과』.

14)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정분(鄭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15)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시민(金時敏),” 디지털진주문화대전.

16)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2), “김시민(金時敏).”

출신 인물로서 하공진과 정분은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의 절의를 지킨 충신이고, 강민첨은 나라를 위하여, 하륜은 이방원을 위하여 드러나게 공로를 세운 훈신(勳臣)이다. 이에 비해 김시민은 충청도 목천 출신이다.

## 2.3 진주의 서원과 책판

### 2.3.1 서원

서원은 후진을 교육하는 교육기능과 학덕이 있는 선현을 모시는 제향의 기능이 있다. 즉 공부하는 곳인 동시에 선현을 제사 지내는 곳이다. 따라서 서원은 교육시설인 강당과 재실(齋室), 제향시설인 사묘(祠廟)로 이루어지는데, 앞에는 교육시설, 뒤에는 제향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7)</sup> 지역의 서원을 통해 지역의 교육과 지방 사람들이 존중하는 인물을 파악할 수 있다. 진주의 서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곡면 죽곡리에 있는 남악서원(南岳書院)은 신라 김유신 장군이 이곳 금산 아래에서 진을 치고 휴식하던 중 비몽간에 신령이 나타나 삼국통일 위업의 가르침을 받아 높은 공을 세웠다고 전하는 곳으로, 서원은 680년경에 창건되었다고 전한다. 이후 1919년 지방 유림들이 중건하고 경주의 서악서원(西岳書院)의 이름을 본떠 남악서원이라고 이름지었다. 사당에는 김유신과 최치원, 설총을 봉안하고 있다.<sup>18)</sup>

옥봉동에 있는 은열사(殷烈祠)는 고려시대의 장군 강민첨(姜民瞻, ?-1021)을 향사하고 있다. 고려 현종 신유년에 세워진 뒤 광해군 때 사액하였다. 강민첨의 본관은 진주이고, 시호는 은열(殷烈)이다.<sup>19)</sup> 현재 은열사에 강민첨의 영정, 즉 초상화가 소장되어 있고, 은열사 뒤편 화장암벽에는 ‘강은열공유지(姜殷烈公遺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 이곳이 강민첨의 탄생지임을 말해주고 있다.<sup>20)</sup>

진주성 내에 있는 청계서원(淸溪書院)은 고려 현종 때 병부상서로 거란의 난을 물리친 진양부원군 은열공(殷烈公) 정신열(鄭臣烈, ?-?)과 1364년(고려 공민왕 13) 봄 문익점이 중국에서 가져온 목화씨를 심어 재배에 성공하여 백성에게 따뜻한 목면 목면옷을 입게 한 문익점의 장인 문충공(文忠公) 정천익(鄭天益)을 모시고 있다. 본래 1833년(순조 33) 대평면 마동에 건립되었으나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철된 후, 1961년 후손들이 이곳에 복원하였다.<sup>21)</sup>

평거면 평거리에 있었던 평천서원(平川書院)은 1841년(헌종 7)에 설립되어 정척(鄭陟, 1390-1475), 정성근(鄭誠謹, 1446-1504), 정백형(鄭百亨, 1590-1637), 주대청(朱大清, 1556-1592), 주몽룡(朱夢龍, ?-?)을 배향하였는데, 고종대에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철되었다. 정척은 본관은 진주, 호는 정암(整

17) 최완기, 『한국의 서원』 (서울: 대원사, 1991), 33-35.

18) 경상대학교박물관 편(2003), 192.

19) 『大東地志』, 晉州牧.

20) 한국학중앙연구원, “은열사 석각,” 디지털진주문화대전.

21) 한국학중앙연구원, “경남사립의 산실, 진주의 서원,” 디지털진주문화대전.

菴), 시호는 공대(恭戴)이다. 1414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정랑, 예조참판, 충청도관찰사를 역임하였고, 1463년(세조 9)에 양성지와 함께 『동국지도』를 만들었다. 해서와 전서에도 뛰어났고, 전고(典故)에도 조예가 깊었다.<sup>22)</sup>

하대동에 있었던 도동서원(道東書院)은 1838년(헌종 4)에 창건되어 정분(鄭芬, ?-1454)·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김문기(金文起)의 4인을 모시고, 뒤에 정이오(鄭以吾, 1347-1434)·하락의 2인을 추배하였다. 1868년 서원이 철폐되어 없어지고 현재는 유허비만 남아 있다.<sup>23)</sup> 향사하는 6인 가운데 정이오와 정분, 하락이 진주 인물로서 관향은 모두 진양이고, 정이오와 정분은 부자(父子)이다.

집현면 신당리 죽산에 있었던 신당서원(新塘書院)은 조지서(趙之瑞, 1454-1504)를 배향하기 위해 1710년(숙종 36)에 창건하여 1718년(숙종 44)에 사액 받았으나 1868년에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고 현재는 사제문비와 비각만 남아 있다.<sup>24)</sup> 조지서의 본관은 임천(林川), 호는 지죽당(知足堂)으로 하동 옥중면에서 태어났다. 1474년(성종 5)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에 임명되었다. 1479년(성종 10) 중시(重試)에 1등으로 합격하여 형조 정랑을 제수 받고 홍문관 교리와 응교를 역임하였다. 세자시강원 보덕으로 연산군이 세자시절에 학문을 진강하였다. 연산군은 세자로 있을 때 조지서의 풍간(諷諫)과 집요한 진강(進講)을 혐오하였는데,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를 일으키고는 조지서를 연루해 참형에 처하였다.<sup>25)</sup>

김시민(金時敏, 1554-1592) 장군을 향사하는 충민사(忠愍祠)가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 진주성 내에는 진주성 제1차 전투에서 김시민 장군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성을 온전히 하고 적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고목사김후시민진성각적비(故牧使金侯時敏全城却敵碑)’가 있다.<sup>26)</sup>

진주성 내에 위치한 창렬사(彰烈祠)는 임진왜란 제2차 진주성싸움에서 장렬하게 순절한 분들의 신위를 모시기 위해 경상도관찰사 정사호(鄭賜濤, 1553-1616)가 건립하여 1607년(선조 40)에 사액을 받았다. 김시민을 모신 충민사가 1868년(고종 5)에 훼손되자 김시민의 신위를 맨 윗자리에 모시고,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1537-1593), 충청병사 황진(黃進, 1550-1593), 경상우병사 최경회(崔慶會, 1532-1593) 등 39인의 신위를 모시고 있다.<sup>27)</sup>

금산면 가방리 관방마을에 있었던 임천서원(臨川書院)은 신암 이준민(李俊民, 1524-1590), 성재 장응태(姜應台), 부사 성여신(成汝信), 창주 하징(河澄), 조은 한몽삼(韓夢參) 등 5현을 모시고 있었

22)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2), “정척(鄭陟),”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3) 한국학중앙연구원, “경남사림의 산실, 진주의 서원,” 디지털진주문화대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633434&cid=51942&categoryId=54806>>, 2019.1.7. 접속.  
 24) 한국학중앙연구원, “경남사림의 산실, 진주의 서원,” 디지털진주문화대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633434&cid=51942&categoryId=54806>>, 2019.2.7. 접속.  
 25)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지서(趙之瑞),” 디지털하동문화대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661294&cid=51944&categoryId=54949>>, 2019.2.7. 접속.  
 26) 경상대학교박물관 편, 『文化遺蹟分布地圖: 진주시』 (진주: 진주시·경상대학교박물관, 2003), 168.  
 27) 경상대학교박물관 편(2003), 175.

다. 고종대에 서원이 훼손되자 그들의 위패를 땅에 묻고 제단을 조성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세운 비가 ‘임천서원오선생위패매안단비(臨川書院五先生位牌埋安壇碑)’이다.<sup>28)</sup> 이준민의 본관은 진의(全義). 호는 신암(新菴). 아버지는 참봉 공량(公亮)이며, 어머니는 조언형(曹彦亨)의 딸이다. 영남의 대학자인 조식(曹植)이 그의 외숙이므로 이준민은 남명 조식의 생질이다. 1549년(명종 4) 식년 문과에 급제해 홍문관정자에 제수되고, 이후 경기관찰사, 평안관찰사, 병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친품이 강직해 사리에 닿지 않으면 승복하지 않았으며, 봉당의 논쟁이 심해지자 병을 핑계로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시호는 효익(孝翼)이다.<sup>29)</sup>

수곡면 사곡리에 있는 대각서원(大覺書院)은 남명 조식의 제자인 각재(覺齋) 하항(河沆, 1538-1590)을 모시기 위해 건립한 대각사에서 1610년(광해군 2)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6위, 즉 손천우(孫天佑)·김대명(金大鳴)·하응도(河應圖)·이수(李壽)·유종지(柳宗智)·하수일(河受一)을 추가하여 합 7위를 배향하면서 이름이 바뀐 것이다.<sup>30)</sup>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오던 중 홍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9년(고종 6)에 훼손되었다가 1918년 지방유림에 의하여 복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31)</sup> 이웃인 대각마을에 각재 하항이 거주하였던 곳임을 알리기 위해 세운 비석인 ‘각재하항선생유허비(覺齋河沆先生遺墟碑)’가 있다.<sup>32)</sup>

지수면 압사리에 있는 용강서당(龍江書堂)은 조선 명종·선조 양대에 이조판서와 대제학을 역임하였고, 남명 조식의 문인인 동강(東岡) 김우옹(金宇顛, 1540-1603)의 학업을 기리기 위해 1902년 지방 유림들이 창건하였다. 김우옹의 저술로는 문집인 『동강선생문집(東岡先生文集)』 본집 17권, 부록 4권 합 21권 11책<sup>33)</sup>과 『속강목(續綱目)』 15권이 있다. 문집 책판 600여 매가 김우옹이 배향된 경북 성주의 청천서원(�淸川書院)에 소장되어 있던 것을 1922년에 용강서당에 평정각이라는 장판각을 건립하여 보관하고 있다.<sup>34)</sup> 김우옹은 본관은 의성(義城)이고, 경북 성주(星州) 출신으로 후손들이 성주에 세거하였는데, 김우옹의 증손 김정익(金庭翊)의 둘째집 손자 김문수가 지수면 압현으로 옮겨 살았다.<sup>35)</sup> 그 이후 진주에 용강서당을 세우고 『동강선생문집』의 책판도 성주에서 옮겨왔다.

문산읍 옥산리에 있었던 정강서원(鼎岡書院)은 1694년(숙종 20)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고려후기의 문신인 정온(鄭溫, 1324-1402)·강숙경(姜叔卿)·하운(河潤)·유백온(兪伯溫)·이제신(李濟臣)·이엽(李玿)·하천주(河天澍)·진극경(陳克敬)·박민(朴敏) 등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오던 중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

28) 경상대학교박물관 편(2003), 214.

29)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2), “이준민(李俊民).”

30) 진주시청, 『진주의 문화유산』 (진주: 진주시청, 2009), 189.

31)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2), “대각서원(大覺書院).”

32) 경상대학교박물관 편(2003), 229.

33) 정현섭, “東岡集 해제,” 경상대학교 도서관 문천각 남명학고문헌시스템.

34) 경상대학교박물관 편(2003), 207.

35)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편, 『진주권 지역의 고문헌』 (진주: 도서출판 열매, 2004), 21.

(고종 5)에 훼손되었다가 복원하지 못하였다.<sup>36)</sup>

금산면 장사리에 있었던 경림서원(慶林書院)은 1821년(순조 21)에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1538-1593)을 제향하기 위해 치암(耻庵) 최상우(崔祥羽) 등의 진주 사림과 김성일의 후손들이 협력하여 1822년(순조 22)에 건립하였다. 이후 대소헌(大笑軒) 조종도(趙宗道)가 추향(追享)되었다.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하여 훼손된 후 복설되지 못하였다.<sup>37)</sup> 김성일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1592년 4월 11일 경상우도병마절도사로 임명되었는데, 전쟁이 터지자 초유사(招諭使)가 되어 흩어진 관병을 수습하고 경상도 일대의 의병을 일으키는 데 전력하였다. 이어 경상우도 관찰사로 임명되자, 왜군의 호남 진출로가 되는 진주성 방어 전략을 지휘하여 마침내 임진왜란 초기의 대승리인 진주성 대첩[1592년 10월]을 이끌었다. 진주성 전투 중에 진주목사 김시민(金時敏)이 전사하였고 왜군이 다시 침공할 것에 대비하여, 김성일은 진주성에서 방어를 지휘하던 중 1593년 4월 병사하였다.<sup>38)</sup>

진주의 서원 13곳 가운데 국가의 공인을 받은 사액서원은 은열사, 창렬사(彰烈祠), 신당서원의 세 곳이었으나, 고종대에 훼손되지 않은 서원은 창렬사가 유일하다. 이는 조선 말기 고종대에 국가에서 인정한 진주의 인물이 진주성 전투에서 전사한 김시민 이하 39인임을 의미한다. 진주 출신 인물을 향사하는 서원은 은열사, 대각서원과 임천서원, 도동서원, 청계서원, 정강서원 등인데, 모두 다 고종대에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었고, 남명 문인인 진양하씨 각재 하향을 향사하는 대각서원과 진양정씨 정신열과 정친익을 향사하는 청계서원만 복원되었다. 이는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와 남명학연구원이 방증하듯이 경상우도 유림의 중심지인 진주는 남명학통이 강하고, 진양하씨와 진양정씨가 진주 지역에서 유력한 가문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2.3.2 책판

경남 진주지역에서 목판에 관각하여 영원히 보존하고자 하였던 문집류의 책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륜(河崧)의 시문집인 『호정하선생문집(浩亭河先生文集)』 책판 46장이 경절사 총의당에 보관되어 있다.<sup>39)</sup> 철종 연간에 하륜의 방손 하진달(河鎭達)이 사적(史籍)과 관계 서책을 수탐(搜探)하여 5권2책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sup>40)</sup>

각재(覺齋) 하항(河沆, 1538-1590)의 『각재선생문집(覺齋先生文集)』 책판 30장, 송정(松亭) 하수일

36)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2), “정강서원(鼎岡書院),”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7) 진주문화원,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 진주』 (진주: 진주문화원, 2006), 83.; 구산우, 『경남의 서원』, 선인.

38) 한국학중앙연구원, “학봉 김성일 선생 유허지(鶴峯金誠一先生遺墟址),” 디지털하동문화대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661796&cid=51944&categoryId=54945>>, 2019.1.7. 접속

39) 한국국학진흥원 기초학문육성사업단(2009), 169.

40) 한국학중앙연구원(2002), “호정집(浩亭集).”

(河受一, 1553-1612)의 『송정선생문집(松亭先生文集)』 책판 63장, 백암 김대명(金大鳴, 1536-1603)의 『백암선생일고(白巖先生逸稿)』 책판 8장이 현재 수곡면 사곡리의 진양하씨 송정종택(松亭宗宅)에 소장되어 있다.<sup>41)</sup> 원래는 수곡면에 위치한 대각서원에 보관되어 있었다.<sup>42)</sup> 창주 하징(1563-1624)의 『창주선생문집(滄洲先生文集)』 책판 67장이 대곡면 단목리 진양하씨 담산고택(澹山古宅)에 소장되어 있다. 태계(台溪) 하진(河潛, 1597-1658)의 『태계선생문집(台溪先生文集)』 책판 172장과 계선관 1장과 능화관 1장, 합 174장이 진양하씨 태계정사(台溪精舍)에 보관되어 있다.<sup>43)</sup>

농포 정문부(鄭文學, 1565-1624)의 『농포집(農圃集)』 책판 76장과 『농포속집(農圃續集)』 책판 119장, 서판(書板) 1장, 계선관 1장, 합 197장이 해주정씨 충의공파 가호서원에 보관되어 있다.<sup>44)</sup> 초간본 원집으로부터 속집 부록 추가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도통사(道統祠)는 본래 대평면 연산리[현 하촌리]에 있었는데, 남강댐 보강공사로 현 위치인 내동면 유수리로 1995년에 이전하였다. 1913년에 창설하여 공자를 주벽(主壁)으로 주자를 배향(配享)하고 안자(安子, 회헌 안향)를 종향(從享)하고 영정(影幀)을 봉안하고 있다.<sup>45)</sup> 이 순흥안씨 도통사에 책판 『공자편년(孔子編年)』 36장, 『주자연보별본(朱子年譜別本)』 33장, 『안자연보별본(安子年譜別本)』 20장, 『공자편년주자연보안자연보합각서(孔子編年朱子年譜安子年譜合刻序)』 3장, 『안자褒蹟提要(安子褒蹟提要)』 5장, 『기묘명현록』 52장, 『회헌선생실기(晦軒先生實記)』<sup>46)</sup> 37장, 『회헌선생실기(晦軒先生實紀)』 78장 등이 보관되어 있다.<sup>47)</sup>

조선말기 경남 진주지역 유학자들은 조선 후기 유교의 당파성과 병폐를 지적하는 동시에 외세가 밀려오는 혼란한 시기가 고려말기의 상황과 같다고 인식하고, 공자-주자-안자(안향)로의 도통의 계보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안향이 공자·주자의 유학을 통해 고려말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갔듯이, 안향이 추구한 공자-주자의 학문을 통해 한말의 어려움을 타개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공자편년』, 『주자연보별본』, 『안자연보별본』, 『회헌선생실기』를 간행하고 공자, 주자, 안향의 영정을 모신 도통사를 중심으로 유교부흥운동의 전개하였으며, 나아가 1917년 8월 28일에 도통사에 공교(孔敎)지회를 설립하기에 이른다.<sup>48)</sup>

41) 한국국학진흥원 기초학문육성사업단(2009), 169.

42) 진주시청(2009), 183.

43) 한국국학진흥원 기초학문육성사업단(2009), 169.

44) 한국국학진흥원 기초학문육성사업단(2009), 170.

45) 한국학중앙연구원, “도통사(道統祠),” 디지털진주문화대전.

46) 『회헌실기(晦軒實記)』는 4차례에 걸쳐 간행되었다. 제1차는 1763년(영조 39) 안향의 17대손 안극권(安克權)이 유집사실(遺什事實)·세계비지(世系碑誌)·제현기술(諸賢記述) 등을 편집하여 1766년에 도동사(道東祠)에서 판각하였다. 제2차는 1816년(순조 16) 안재묵(安在默) 등이 증보했으며, 홍석주(洪奭周)의 서문이 있다. 제3차는 안명렬(安明烈) 등이 1883년(고종 20)에서 1884년 사이에 간행했으며, 민영목(閔泳穆)의 서문이 있다. 모두 4권 2책으로 되어 있다. 제4차는 1909년 안향의 후손과 사림이 합의하여 진주의 연산(硯山) 간행하였다. 5권 3책으로 되어 있으며, 이만도(李晩燾)의 서문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2), “회헌실기(晦軒實記).”

47) 한국국학진흥원 기초학문육성사업단(2009), 169.

48) 강정화, “晉州 道統祠의 출판 활동과 그 의의,” 『東洋漢文學研究』 제43집(2016. 2), 5-25.

『주자어류(朱子語類)』는 중국 宋나라의 여정덕이 주자와 그 문인들과의 문답을 집성하여 편집한 50책이나 되는 거질이다. 제1차 판각은 1575년에 이루어졌으나 임란 때 소실되었고, 제2차 판각은 인조조에 영남감영에서 판각하였으나, 이도 소실되었다. 제3차 판각은 1770년 국가의 명으로 영남관찰사가 판각하였으나 마멸되었다. 제4차 판각이 1904-1905년에 곽종석·하재곤·하세진·이도술·허균 등 68인의 서부경남 선비들이 후원하여 산청군 시천면의 대원사(大源寺)에서 판각하였으니, 총 2,076장이 다. 현재 진주시 수곡면 사곡리의 진양하씨 수拙齋(守拙齋) 뒤의 광명각에 보관되어 있다.<sup>49)</sup>

1808년 경상도 사림이 판각한 김우옹(金宇顛, 1540-1603)의 『동강선생문집(東岡先生文集)』 36권 12책의 책판 332장과 윤휴의 『백호선생문집부록(白湖先生文集附錄)』의 책판 48장이 지수면 압사리 용강서당에 보관되어 있다.<sup>50)</sup> 『동강선생문집(東岡先生文集)』 책판은 성주의 청천서원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옮겨왔다.

이와 같이 진주에서 판각한 문집류의 책판을 볼 때 진주출신 인물은 서원에 향사된 인물이나 파조에 해당하는 인물이 대부분이다. 눈에 띄는 것은 조선조 말기에 공자-주자-안향의 유교의 도통을 확립하여 유교 부흥을 통해 외세에 대항하고자 했던 유교부흥운동의 구심점이 진주의 도통사였고, 이런 맥락에서 『주자어류(朱子語類)』의 판각에도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 선비들이 대거 후원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 3. 진주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 경향 분석

문집(文集)은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의 문장이나 시부 등을 찬집한 것으로 류탁일은 합고류(合稿類)·유집류(遺集類)·전집류(全集類)·실기류(實記類) 등을 포괄한 것으로 보았다.<sup>51)</sup> 이는 문집의 하위범주를 문집, 합고, 유집, 전집, 실기의 다섯 갈래로 구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문집의 하위범주를 문집, 유집, 실기로 세 구분하였다. 합고는 저자 2인 이상의 시문이 합편되는

49) 진주시청(2009). 71-72.

50) 한국국학진흥원 기초학문육성사업단, 『경남지역의 목판자료(2)』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9), 169 참고.

51) 유집류는 유고·유집·일집(逸集)·일고(逸稿) 등이 이에 속하는데, 유고(집)는 유문(遺文)을 모은 유문집이라는 뜻이고, 일고(집)는 저작자의 작품이 전란이나 기타 재화로 인하여 없어지고 남은 잔편(殘篇)을 수집, 편찬할 때 붙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때 유고나 일고는 저자의 자편(自篇)일 수 없고 후인(後人)이 찬집한 것이 되며, 분량은 대개 1, 2책 정도이다.

전집류는 저술을 많이 남긴 큰 학자의 모든 저작물을 모아 편집한 책을 말하는데, 전집(全集)·전서(全書)·대전(大全) 등이 이에 속한다. 예를 들면, 『성호선생문집(星湖先生文集)』·『도산전서(陶山全書)』와 같이 쓰임이 보통이나, 한 개인의 저작 전집을 ‘대전’으로 붙인 것은 송시열(宋時烈)의 문집인 『송자대전(宋子大全)』이 유일한 것이다. 실기류는 주로 피전자(被傳者)의 행적을 주로 하고, 그가 남긴 시문과 후인들의 송찬(頌讚)·시문을 합하여 간행하는 것이다. 정확한 의미로는 전기류에 속하지만 일반적으로 문집이라는 개념 속에 포괄되어 사용된다. 실기는 본인의 저술은 별로 없고 후인들의 송찬·시문 및 사적(事跡)이어서 사실이 더러 과장되었거나 허구성이 짙은 경우도 있다. 류탁일, “문집,”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2).

경우인데, 이는 유집이나 실기도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전집은 1인의 시문이 여러 차례 편찬, 간행되는 경우에 후일에 모두 모아서 전집의 형태로 편찬되어 양은 방대하지만 문집 가운데 1인의 시문으로 이루어진 별집에 해당하므로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문집이나 유집, 실기 모두 저자 1인의 시문이면 별집, 2인 이상의 시문이면 합집으로 하위 구분하였다. 문집에는 일반적으로 운문인 시(詩)와 산문인 문(文)이 함께 실리는데, 간혹 시만 모아놓은 시집이 발견되기도 한다.<sup>52)</sup>

### 3.1 문집의 유형

경남 진주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 60종의 유형을 분석하면 다음 <표 1><sup>53)</sup>과 같다.

<표 1> 진주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의 유형

구분		종수	%	문집명(종수)	
문집 (文集)	별집	시문	37	61.7	각포집(覺圃集), 간암문집(艮嶺文集), 경현재집(警弦齋集), 교은선생문집(郊隱先生文集)(2), 국담문집(菊潭文集), 국천선생난고(菊泉先生爛稿), 금계선생문집(琴溪先生文集), 남계집(南溪集), 눌암선생문집(訥菴先生文集), 눌암선생문집(訥菴先生文集), 만회당문집(晩悔堂文集), 매당집(梅堂集), 매은문집(梅隱文集), 명암집(明庵集), 물계문집(勿齋文集), 방산집(防山集), 방주문집(芳州文集), 백호선생문집(白湖先生文集), 성계집(惺溪集), 소은선생문집(素隱先生文集), 송대선생문집(松臺先生文集), 습정재문집(習靜齋文集), 아단문집(我丹文集), 역헌문집(櫟軒文集), 염호문집(濂湖文集), 예암집(豫庵集), 오산선생문집(吾山先生文集), 옥산잡고(玉山雜稿), 일수헌집(一樹軒集), 조은선생문집(釣隱先生文集), 오선생문집(竹塢先生文集), 지와문집(芝窩文集), 창사집(昌舍集), 행정문집(杏亭文集), 황사집(堂沙集)
		부록	1	1.7	간암문집부록(艮嶺文集附錄)
		시	1	1.7	사무재시고(四無齋詩稿)
	합집	시문	0	0	
유집 (遺集)	별집	14	23.3	국포유고(菊圃遺稿), 극재유고(克齋遺稿), 남호유고(南湖遺稿), 단사유고(丹砂遺稿), 만회유고(晩悔遺稿), 목계선생일고(木溪先生逸藁), 미암유고(薇庵遺稿), 신암유고(愼菴遺稿), 우산유고(愚山遺稿), 일헌유고(一軒遺稿), 전천유고(前川遺藁), 학고유고(鶴阜遺稿), 허암선생유집(虛庵先生遺集), 회곡유집(晦谷遺集)	
	합집	3	5	고양세고(高陽世稿), 응천세보(凝川世寶)(2)	
실기 (實記)	별집	4	6.6	감호공실적(鑑湖公實蹟), 근제선생실기(覲齋先生實記), 생원공실기(生員公實紀), 창주선생유사(滄洲先生遺事)	
	합집	0	0		
계		60종	100%		

경남 진주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60종의 유형을 보면, 문집은 39종(65%), 유집은 17종(28.3%), 실기는 4종(6.7%)이다. 이로 볼 때 저자의 시문이 주를 이루는 문집이 전체 60종 가운데 39종(65%)

52) 송정숙, “경남 합천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양상,” 『書誌學研究』, 제73집(2018. 3), 220.

53) 『교은선생문집(郊隱先生文集)』과 『응천세보(凝川世寶)』는 각각 저자는 동일하나 편집자와 간행연도가 달라서 2건으로 처리하였다.

으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저자의 시문이 전란이나 화재 등으로 많이 없어지고 난 후 남아있는 글을 수습하여 편찬한 유집이나 저자의 글은 아주 적고 저자의 행적에 관한 글이 주류를 이루는 실기도합 21종(35%)이나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인의 시문을 모은 별집과 2인 이상의 시문을 모은 합집의 비율을 보면, 별집은 57종(95%), 합집은 3종(5%)으로 별집:합집은 19:1의 비율이다. 이로써 95%에 해당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집이 1인의 시문을 모은 별집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문집에 실린 글의 종류가 운문인 시(詩)만 모은 시집은 1종(1.7%)에 불과하고, 59종(98.3%)은 운문인 시(詩)와 산문인 문(文)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진주지역 간행 목활자본은 거의 대부분이 1인의 시문을 모은 별집임을 알 수 있다.

『간암문집』 11권5책과 『간암문집부록』 2권1책은 근대의 유학자 박태형(朴泰亨, 1864-1925)의 문집과 부록으로 판식도 동일하고,<sup>54)</sup> 간행년도 1949년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간암문집부록』이 『간암문집』과 편차를 달리하고 있어 문집 간행 후에 곧 이어 부록이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태형의 호는 간암(艮嶽)이고, 본관은 함양(咸陽)이다. 박태형이 고종 때의 문신으로 송시열(宋時烈)의 9세 손인 송병선(宋秉璿, 1836-1905)<sup>55)</sup>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것으로 미루어 박태형의 학문적 성향은 기호학파의 노론계열임을 알 수 있다.

진주간행 목활자본 문집 가운데 『사무재시고(四無齋詩稿)』 3권1책은 유일한 시집이다. 저자인 정즙(鄭楫, 1645-1728)은 조선 후기의 선비로 본관은 해주(海州), 호는 사무재(四無齋)이다. 봉강(鳳岡) 정유정(鄭有禎)의 아들로 1665년에 진사(進士)에 입격하였고, 학행이 깊고 신실하여 칭송이 높았다. 우암 송시열의 문인인 외재(畏齋) 이단하(李端夏, 1625-1689)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662년(현종 3)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북평사로 있을 때 감사 민정중(閔鼎重)과 함께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정문부(鄭文孚)의 사적(史蹟)을 조사해 조정에 알려 관직을 추증시켰다.<sup>56)</sup>

합집인 『고양세고(高陽世稿)』는 5권2책으로 卷1-3은 고령박씨 박문국(朴文國)의 『松泉遺集』, 卷4-5는 박종원(朴鍾源)의 『愚齋遺集』으로 구성된 유집의 합집이다.

합집인 『응천세보(凝川世寶)』의 ‘응천’은 경남 밀양의 옛 지명으로, 밀양박씨의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라는 뜻이다. 『응천세보(凝川世寶)』 4권2책은 박강생(朴剛生, 1369-1422)의 『나산유고(蘿山遺稿)』, 그 손자인 박중손(朴仲孫, 조선)의 『默齋遺稿』, 목재의 둘째아들로 세조조에 문과급제하고 승지와 예조

54) 『간암문집』 11권5책과 『간암문집부록』 2권1책의 형태사항: 四周單邊 半郭 20.1 x 16.0 cm, 有界, 10行20字, 上下內向上2葉下1葉花紋魚尾 ; 32.0 x 20.8 cm. 경상대학교 도서관 문천각 남명학교문헌시스템. <[http://nmh.gnu.ac.kr/jsp/search/search\\_seoji.jsp?id=GBY2\\_ZZZL\\_GAM302&code=&flag=all](http://nmh.gnu.ac.kr/jsp/search/search_seoji.jsp?id=GBY2_ZZZL_GAM302&code=&flag=all)>.

55) 송병선은 본관은 은진(恩津), 호는 연재(淵齋)이며, 대전 회덕(懷德) 출생으로 송시열(宋時烈)의 9세손이다. 1877년(고종 14) 태릉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그 뒤 여러 차례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거절하였다. 1905년 11월 일제가 무력으로 위협하여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고 국권을 박탈하자 두 차례의 『청토홍적소(請討凶賊疏)』를 올렸다. 그해 음력 12월 30일 국권을 강탈당한 데 대한 통분으로, 황제와 국민과 유생들에게 유서를 남겨 놓고 세 차례에 걸쳐 다량의 독약을 마시고 자결하였다. 유서에서 을사조약 처형, 을사조약 파기 및 의(義)로써 쫓겨하여 국권을 회복할 것을 호소하였다. 죽은 뒤 의정(議政)에 추증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2), “송병선(宋秉璿).”

56)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2), “이단하.”

참의를 지낸 박순(朴楯 楯?)의 『존성재유고(存誠齋遺稿)』, 존성재의 동생으로 밀원부원군으로 봉해진 박건(朴楡)의 『밀원군유고(密原君遺稿)』 등 밀양박씨 16인의 시문과 유적을 모은 유고의 합집이다.<sup>57)</sup>

박강생의 본관은 밀양이고, 호는 나산경수(羅山耕叟)이다.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1390년(공양왕 2)에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검열(藝文檢閱)에 보직되었다. 1392년 조선이 개국되자 호조전서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였다. 집현전 부제학을 역임했으며, 1424년(세종 6) 딸이 세종의 후궁인 귀인박씨(貴人朴氏)가 됨으로써 찬성(贊成)에 추증되었다. 문장이 전아(典雅)한 것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저술로는 『배불론(俳佛論)』이 있다.<sup>58)</sup>

『사무재시고(四無齋詩稿)』의 저자 정증은 우암 송시열의 문인인 외재 이단하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간암문집』의 저자 박태형은 우암 송시열의 9세손인 연재 송병선의 문인이다. 이로 미루어 1623년 인조반정으로 광해군대의 집권세력인 정인홍을 비롯한 북인이 몰락하고 정국을 기호학파의 서인이 주도하자 다수의 진주의 유림이 집권세력인 서인의 우암 송시열의 문인 또는 후손의 문하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 3.2 문집의 저자사항

#### 3.2.1 문집 저자의 출생연도 분석

경남 진주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 저자들이 어느 시대에 활동한 인물인지 알아보기 위해 저자의 출생연도를 조사하였다. 문집 저자의 출생연도가 소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집 부록의 행장을 통해 출생연도를 파악하였다.

진주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60종의 저자 57인의 출생연도를 분석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진주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저자의 출생연도

출생연도	인원(종수)		출생년(인원)
1300-1349	2(4)	1(2)	1347(1, 2종)
1350-1399		1(2)	1369(1, 2종)
1400-1449	3(3)	1(1)	1436(1)
1450-1499		2(2)	1464(1), 1469(1)
1500-1549	6(6)	-	-
1550-1599		6(6)	1563(1), 1569(1), 1583(1), 1589(1), 1592(1), 1596(1)

57) 나머지 14인의 유고명과 저자이다. 密城君遺稿 / 朴光榮(朝鮮) 著. -- 訥齋遺稿 / 朴增榮(朝鮮) 著. -- 松堂遺稿 / 朴英(朝鮮) 著. -- 江亭遺稿 / 朴薰(朝鮮) 著. -- 駱村遺稿 / 朴忠元(朝鮮) 著. -- 駱峰遺稿 / 朴謹元(朝鮮) 著. -- 松月堂遺稿 / 朴好元(朝鮮) 著. -- 拙齋遺稿 / 朴崇元(朝鮮) 著. -- 灌園遺稿 / 朴啓賢(朝鮮) 著. -- 尼溪遺稿 / 朴來吾(朝鮮) 著. -- 肥園遺稿 / 朴奎淳(朝鮮) 著. -- 二安亭遺稿 / 朴公鎮(朝鮮) 著.

58)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2), “박강생(朴剛生).”

출생연도		인원(종수)		출생년(인원)	
1600-1649		8(8)	4(4)	1617(1), 1630(1), 1634(1), 1645(1)	
1650-1699			4(4)	1664(1), 1666(1), 1676(1), 1683(1)	
1700-1749		13(13)	6(6)	1717(1), 1724(1), 1726(1), 1734(1), 1737(1), 1741(1)	
1750-1799			7(7)	1754(1), 1758(1), 1762(1), 1768(1), 1777(1), 1778(1), 1792(1)	
1800-1849	1800-1809	25(26)	12(12)	2(2)	1804(1), 1807(1)
	1810-1819			4(4)	1816(2), 1817(1), 1818(1)
	1820-1829			2(2)	1821(1), 1824(1)
	1830-1839			2(2)	1837(1), 1838(1)
	1840-1849			2(2)	1841(1), 1845(1)
1850-1899	1850-1859	13(14)	6(6)	1852(1), 1855(1), 1855(1), 1856(1), 1857(1), 1859(1)	
	1860-1869		3(4)	1861(1), 1864(2, 3종)	
	1870-1879		3(3)	1870(1), 1874(1), 1876(1)	
	1880-1889		1(1)	1882(1)	
	1890-1899		-	-	
계		57(60)			

진주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60종의 저자 57인의 출생연도를 분석해 보면, 14세기 후반인 1347년에 출생한 『교은선생문집』의 정이오부터 19세기 후반인 1882년에 출생한 『옥산잡고』의 허용구까지 535년의 간극이 있다. 진주지역의 목활자본 문집 저자 57인의 출생연도 분포를 100년 단위로 분석해 보면, 14세기 2인(3.5%), 15세기 3인(5.3%), 16세기 6인(10.5%), 17세기 8인(14%), 18세기 13인(22.8%), 19세기 25인(43.9%)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 가운데 18세기 출생자가 13인(23%), 19세기 출생자가 25인(약44%)로 18-19세기 출생자가 38인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한다.

14세기에 출생한 고려말 조선초기의 인물은 『교은선생문집(郊隱先生文集)』의 정이오(鄭以吾, 1347-1434)와 『응천세보(凝川世寶)』의 박강생(朴剛生, 1369-1422) 2인이다. 진주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의 저자 57인 가운데 고려조에 출생한 2인을 제외한 55인이 조선 세종조인 1436년(세종 18) 이후에 출생한 것으로 미루어 진주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의 저자는 대부분 조선조 인물임을 알 수 있다.

15세기에 출생한 인물은 『근재선생실기(覲齋先生實記)』의 이맹현(李孟賢, 1436-1487), 『목계선생일고(木溪先生逸藁)』의 강혼(姜渾, 1464-1519), 『허암선생유집(虛庵先生遺集)』의 정희량(鄭希良, 1469-1502)의 3인으로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맹현(李孟賢, 1436-1487)은 조선 전기의 문신·학자로 본관은 재령(載寧), 자는 사성(師聲), 호는 근재(覲齋)이다. 아버지는 호조참판 이개지(李介智)이며, 어머니는 진주 하씨 하경리(河敬履)의 딸이다. 1456년(세조 2)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1460년(세조 6)에는 춘당시(春塘試)에 을과로 급제한 뒤 성균관주부를 거쳐, 1464년(세조 10)에는 수찬낭관(修撰郎官)으로 『동국통감(東國通鑑)』을 편수하는 데 참여하였다. 그 뒤 이조정랑·예조참의·홍문관부제학·이조참판·나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과 창화(唱和)한 시 3수가 문집에 전한다.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誌)』는 1469년(예종 1)에 경상도관찰사 김겸광(金謙光), 김해부사

이맹현(李孟賢), 경주교수 주백손(朱伯孫), 성주교수 장계이(張繼弛), 안동교수 조욱(趙昱) 등이 왕명을 받들어 편찬한 경상도지리지이다. 이 책은 『신찬팔도지리지』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지방의 자료를 모으기 위해 편찬된 것이었다. 또한 이 책은 서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전지(前志)’인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를 속찬하여 빠지고 간략한 사항을 보충하려는 목적에서 편찬되었다.<sup>59)</sup>

『목계선생일고(木溪先生逸藁)』의 저자 강혼(姜渾, 1464-1519)은 진주 월아산 아래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진주, 호는 목계이다. 강혼은 1483년(성종 14) 생원·진사 양시에 합격하고, 1486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호당(湖堂)에 들어가 사가독서 하였다.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김종직의 문인이라 하여 장류(杖流)되었다가 얼마 뒤 풀려났다. 그 뒤 연산군에게 문장과 시로써 아부하여 도승지에 올랐다. 1506년 중종반정 때 박원종 등이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영의정 류순(柳濤)의 주선으로 반정군에 나가 목숨을 빌고 반정에 가담하여 좌승지를 거쳐 대제학과 이조판서, 좌찬성을 역임하고 진천부원군에 봉해졌다. 시문에 뛰어나 김일손(金駟孫)에 버금갈 정도로 당대에 이름을 떨쳤으나 명리를 지나치게 탐냈다. 시문에 능통했던 강혼에게 기생과의 사랑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허암선생유집(虛庵先生遺集)』의 저자 정희량(鄭希良, 1469-1502)의 본관은 해주(海州), 호는 허암(虛庵)이며,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다. 1495년(연산군 1) 문과에 급제하여 이듬해 예문관검열이 되고, 승문원의 권지부정자에 임용되었다. 이듬해 김진(金詮)·신용개(申用溉)·김일손(金駟孫) 등과 함께 사가독서(賜暇讀書)에 선정될 정도로 문명(文名)이 있었다. 1498년 『세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무오사화 때는 사초문제(史草問題)로 윤필상(尹弼商) 등에 의해 신용개·김진 등과 함께 탄핵을 받아 의주에 유배되었다가, 1500년 5월 김해로 이배되었다. 이듬해 유배에서 풀려나 직첩을 돌려받았다. 그 해 어머니가 죽자 고양에서 수분(守墳)하다가 산책을 나간 뒤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허암선생유집』은 정희량이 무오사화 때 의주와 김해 두 유배지에서 읊은 시를 모은 것으로 이우와 김사형이 중종반정 직후인 1511년(중종 6)에 3권 1책으로 엮은 원집이 있었고<sup>60)</sup>, 목활자본인 『허암선생유집(虛庵先生遺集)』은 1897년 후손인 홍석, 면석 등이 원집에 빠진 시문과 부록을 6권2책으로 엮어 간행하였다.

진주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의 저자 가운데 15세기에 출생한 3인은 모두 사림파의 영수로 일컬어지는 밀양 출신의 점필재 김종직(金宗直, 1431-1492)과 관련이 있다. 이맹현은 김종직과 시를 주고 받았고, 강혼과 정희량은 김종직의 문인이었다.

59) 최중석, “慶尙道續撰地理誌 해제,”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nl/search/SearchDetail.nl?service=KOLIS&vdkvgwkey=1134093&colltype=DAN\\_OLD#none](http://www.nl.go.kr/nl/search/SearchDetail.nl?service=KOLIS&vdkvgwkey=1134093&colltype=DAN_OLD#none)>, 2018.8.9. 접속.

60) 안순태, “虛庵先生遺集 해제,” 규장각 홈페이지, <<http://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 2019.2.5. 접속.

### 3.2.2 저자의 성관(姓貫)

향촌사회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조선후기에 학문적 역량이 있는 선조가 있음을 증거하는 문집 간행은 문중의 주요 사업이었다. 진주에서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문중을 파악하고자 문집 저자의 성씨와 관향(貫鄉), 즉 성관(姓貫)을 조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진주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저자의 성관(姓貫)

발행 종수	성씨의 종류	성관	저자명(출생년 순)
13종	1	진양하씨	하징(河澄), 하선(河璿), 하명(河溁), 하해관(河海寬), 하응운(河應運), 하복호(河復浩), 하진태(河鎭兌), 하진백(河鎭伯), 하우현(河友賢), 하진달(河鎭達), 하범운(河範運), 하치윤(河致潤), 하계휘(河啓輝),
7종	1	재령이씨	이맹현(李孟賢), 이중광(李重光), 이동백(李東白), 이희석(李熙奭), 이상돈(李相敦), 이현갑(李鉉甲), 이수안(李壽安),
5종	1	진양강씨	강혼(姜渾), 강세진(姜世晉), 강식준(姜式儔), 강이섭(姜二燮), 강영지(姜永祉)
4종	2	진양정씨	정이오(鄭以吾, 2종), 정장(鄭樟), 정호신(鄭虎臣)
		해주정씨	정희량(鄭希良), 정집(鄭楫), 정식(鄭枳), 정규원(鄭奎元)
3종	1	김해허씨	허박(許鑄), 허희(許滄), 허용구(許容九)
2종	3	밀양박씨	박강생(朴剛生 등, 2종)
		함양박씨	박태형(朴泰亨, 2종)
		전주최씨	최태진(崔台鎭), 최광진(崔匡鎭)
1종	18	능성구씨	구연호(具然鎬)
		의성김씨	김인락(金麟洛)
		남평문씨	문국현(文國鉉)
		고령박씨	박문국(朴文國)
		태안박씨	박지서(朴旨瑞)
		창녕성씨	성사안(成師顔)
		밀양손씨	손명래(孫命來)
		평산신씨	신명구(申命耇)
		청송심씨	심열(沈洌)
		남원양씨	양주희(梁柱熙)
		남원윤씨	윤휴(尹鑄)
		경주이씨	이지영(李之榮)
		합안이씨	이제권(李濟權)
		합천이씨	이상호(李尙鎬)
		전주전씨	전기주(全基柱)
		창녕조씨	조용(曹鎔)
		청주한씨	한몽삼(韓夢參)
		양천허씨	허규(許燿)
계	27		

위 <표 3>에서 보듯이, 진주지역에서 목활자로 간행된 문집 저자의 성관을 파악해 보면, 목활자본

문집 60종을 간행한 저자 57인의 성관은 모두 27개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문집을 간행한 성씨는 13종을 간행한 진양하씨이고, 다음은 7종을 간행한 재령이씨, 5종을 간행한 진양강씨, 4종을 간행한 진양정씨·해주정씨, 3종을 간행한 김해허씨 순이다. 2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성씨는 밀양박씨·함양박씨·전주최씨이고, 1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성씨는 18개로서 능성구씨, 의성김씨, 남평문씨, 고령박씨, 태안박씨, 창녕성씨, 밀양손씨, 평산신씨, 청송심씨, 남원양씨, 남원윤씨, 경주이씨, 함안이씨, 합천이씨, 전주전씨, 창녕조씨, 청주한씨, 양천허씨이다.

예로부터 진주는 ‘강(姜) 하(河) 정(鄭)’이라고 했다. 고려 말 진주를 찾은 포은 정몽주가 비봉루에 올라 ‘지령인걸강하정(地靈人傑姜河鄭)’이라 노래한<sup>61)</sup> 이후로 진주 ‘강하정’이란 말이 생겨났다. 진주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 저자의 성관이 진양하씨, 재령이씨, 진양강씨, 진양정씨·해주정씨의 순서이니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진주에서 가장 많은 13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진양하(河)씨의 인물은 『창주선생유사(滄洲先生遺事)』의 하징(河愷), 『송대선생문집(松臺先生文集)』의 하선(河璿), 『생원공실기(生員公實紀)』의 하명(河洺), 『일헌유고(一軒遺稿)』의 하해관(河海寬), 『습정재문집(習靜齋文集)』의 하응운(河應運), 『단사유고(丹砂遺稿)』의 하복호(河復浩), 『행정문집(杏亭文集)』의 하진태(河鎭兌), 『국담문집(菊潭文集)』의 하진백(河鎭伯), 『예암집(豫庵集)』의 하우현(河友賢), 『역헌문집(櫟軒文集)』의 하진달(河鎭達), 『죽오선생문집(竹塢先生文集)』의 하범운(河範運), 『학고유고(鶴阜遺稿)』의 하치윤(河致潤), 『아담문집(我丹文集)』의 하계휘(河啓輝)의 13인이다.

하징(河愷, 1563-1624)의 『창주선생유사(滄洲先生遺事)』는 저자의 후손 하종식(河宗植)·하계태(河啓泰)·하우식(河祐植) 등이 1897년(광무 1)에 오방재에서 3권1책으로 편집하여 목활자로 인출하였다. 문집의 권두에는 우암 송시열의 8대손으로 기호학통의 계승자인 송근수(宋近洙, 1818-1903)의 서문이 있다. 이를 10년 뒤인 1907년 1월에 당시 노론 학자의 종장이었던 간재(良齋) 전우(田愚, 1841-1922)의 서문을 받고, 후손 담산(澹山) 하우식(1875-1943)이 연보를 만들어 추가하여 1939년 『창주선생문집』으로 이름을 바꾸어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이 책판은 현재 대곡면 단목리 담산고택에 소장되어 있다.

진주 단목에는 창주 하징의 후예들이 살고 있다. 창주파(滄洲派)의 파조인 하징은 정인홍의 문인으로 남명 조식을 사숙하였으며, 1606년에는 덕천서원의 원장을 역임하여 남명 조식의 현양사업을 주도하는 등 남명학파의 결집에 노력하였다. 그의 선대는 전형적인 진주 토반으로서 고려시대 이래로 다수의 급제자와 현관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진주의 명문으로서 확실한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특히 여말 선초의 격동기에 하륜이 조선왕조 개창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진양하씨의 가문은 크게 신장할 수 있었다. 비록 하륜은 창주의 직계는 아니지만 그의 정치적 위상은 진양 하씨는 물론 상당수의 진주지역 인사들이 중앙 정계로 진출하는데 커다란 발판이 되었다.

61) 고려시대 포은 정몽주가 경상도안렴사로 영남을 순행하던 중 진주의 진산인 비봉산의 비봉루에 올라 칠언절구를 남겼다.

이러한 창주 하징의 학문적 업적을 고스란히 후대에 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창주 하징의 현손으로 1939년에 간행된 『습정재문집(習靜齋文集)』의 저자 하응운(河應運, 1676-1736)이다. 하응운은 일찍이 과거를 포기한 재야의 선비로서 가학을 계승하여 자손들이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그는 1721년 진주지역 유림들이 송시열·송준길의 문묘 종사를 추진하자 두 아들인 재악(載岳)과 필동(必東)을 보내 참여하게 하였다. 이때 하응운은 두 아들에게 “두 선생은 동방의 대현이며 우리 집안의 은인이다. 너희들이 정성을 다하도록 하여라” 하고는 문묘 종사 상소에 앞장서게 하였다. 송시열과 송준길은 하응운의 조부로 『생원공실기(生員公實記)』의 하명(河溟, 1630-1687)이 ‘남명집 輯覽’ 문제로 억울한 누명을 쓰자 이를 적극 구제해준 인연이 있다. 이때 상소는 해주정씨 농포 정문부의 현손인 정상호·정상열 등의 주도하에 추진되었으니, 진주의 해주정씨 농포 자손들은 진양 하씨 창주파와 더불어 진주지역 노론 세력을 유지하는 양대 축이었다.<sup>62)</sup>

행정(杏亭) 하진태(河鎭兌)는 습정재 하응운의 맏아들 재악의 아들이니, 하응운의 손자이다. 사람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가치있는 도리를 ‘효도’라고 생각한 하진태는 ‘효자’로 이름이 드러났다. 『진양속지(晉陽續誌)』 효행편에 “하진태의 자는 찬언(贊彦)이요 호는 행정(杏亭)이니 생원 하명의 현손이다. 여섯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슬피하기를 어른과 같이 했다. 9살 때에는 어머니의 명으로 조희맹(趙希孟)에게 수학하다가 19살 때 스승에게 울면서 어머니 봉양을 위해 돌아갈 것을 고하고 돌아와서는 50년 동안을 하루같이 노모를 효성으로 봉양하였다. 어머니가 병이 들자 변을 맛보고 손가락을 끊었으며, 등불을 켜고 하늘에 빌었다. 하늘에 비는 동안 등불의 기름이 비에 젖어도 불이 꺼지지 아니했으며 어머니의 병은 차츰 나았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슬픔이 너무 커 실성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또 효도를 하고 남은 힘으로 학문(學文)에 전심하여 ‘서명집성(西銘集成)’과 ‘유집(遺集)’을 남겼다. 사람들이 관청에 포창을 청하였고, 고종조에는 동몽교관의 벼슬을 증직하고 정려를 내렸으니, 입재(立齋) 송근수(宋近洙)가 정려기를 지었다.”<sup>63)</sup>

이러한 사실을 통해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진양하씨에는 진주 단목의 창주공파의 후손이 많으며, 그 가운데 하우식과 하계휘 등이 문집 간행을 주선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 3.3 문집의 간행사항

#### 3.3.1 간행연도

문집의 간행연도는 문집 권말의 간행기록인 간기(刊記)와 인기(印記), 1909년 출판법 공포 이후 간행된 책의 경우에는 판권지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간혹 간행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서문이나

62) 강동욱, “습정재 하응운,” 『경남일보』, 2003.8.31.

63) “행정 하진태,” 『경남일보』, 2016.11.11.

발문 가운데 가장 최후에 작성된 서문이나 발문의 작성연도를 통해 간행연도를 추정하였다.  
 경남 진주지역에서 목활자로 간행된 문집 60종의 간행연도를 분석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진주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연도

간행연도		종수 (%)	간행년(종수)
1780-1789	1	1(1.7%)	1780(1종)
1840-1849	1	1(1.7%)	1840(1종)
1850-1859	8	0	-
1860-1869		1(1.7%)	1868(1종)
1870-1879		1(1.7%)	1874(1종)
1880-1889		0	-
1890-1899		6(10%)	1893(1종), 1894(1종), 1897(2종), 1899(2종)
1900-1909	43	11(18.3%)	1900(1종), 1901(2종), 1902(1종), 1904(1종), 1906(1종), 1907(1종), 1908(3종), 1909(1종)
1910-1919		4(6.7%)	1910(1종), 1911(1종), 1916(1종), 1918(1종)
1920-1929		10(16.7%)	1920(1종), 1921(2종), 1922(2종), 1923(2종), 1926(1종), 1927(1종), 1929(1종)
1930-1939		10(16.7%)	1931(1종), 1933(1종), 1934(1종), 1935(1종), 1936(1종), 1937(1종), 1938(2종), 1939(2종)
1940-1949		8(13.3%)	1940(3종), 1941(1종), 1943(2종), 1949(2종)
1950-1959	7	5(8.3%)	1950경(1종), 1955(2종), 1959(2종)
1960-1969		2(3.3%)	1962(2종)
계		60(100%)	

위 <표 4>에서 보듯이, 경남 진주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 60종은 한몽삼(韓夢參)의 『조은선생문집(鈞隱先生文集)』이 간행된 1780년부터 이지영(李之榮)의 『눌암선생문집(訥菴先生文集)』과 하계휘(河啓輝)의 『아단문집(我丹文集)』이 간행된 1962년까지 182년 동안 간행되었는데, 56종(93%)이 1893년 이후에 간행되었다. 가장 많이 간행된 시기는 11종(18.3%)이 간행된 1900년대이고, 다음은 10종(16.7%)이 간행된 1920년대와 1930년대이며, 다음은 8종(13.3%)이 간행된 1940년대, 다음은 6종(9.8%)이 간행된 1890년대, 5종이 간행된 1950년대, 2종이 간행된 1960년대의 순이다. 이로써 진주지역에서 목활자본 문집은 조선조 말기인 189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간행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은 1780년, 1840년, 1868년, 1874년에 각 1종씩 간헐적으로 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189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60년 동안에 전체 60종의 문집 가운데 약 82%에 달하는 49종이 간행된 것을 볼 때, 진주지역에서는 조선조 말기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사회적 격변기에 전통지식인 집단이 자기 문중의 학문을 선양하고 전통적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이 시기에 지식과 정보의 유통수단으로 목판인쇄에 비해 저비용으로 단기간에 인출이 가능한 목활자 인쇄가 선호되고 대중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3.2 저자 사후 문집간행 소요기간

경남 진주지역에서 목활자본 문집이 저자 사후 몇 년 만에 간행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저자 사후 문집간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진주지역 목활자본 문집 저자 사후 문집간행 소요기간

저자 사후 소요기간		종수 / %		기간(종수)	
사후1-50년	사후 1-10년	31(51.7%)	8(13.3%)	1년(2종), 2년(2종), 3년(3종), 9년(1종)	
	사후 11-20년		6(10%)	11년(1종), 12년(2종), 15년(2종), 19년(1종)	
	사후 21-30년		2(3.3%)	24년(2종)	
	사후 31-40년		6(10%)	31년(1종), 36년(1종), 37년(1종), 39년(1종), 40년(2종)	
	사후 41-50년		1(1.7%)	42년(1종)	
사후 51-100년		8(13.3%)	8(13.3%)	54년(1종), 62년(1종), 72년(1종), 73년(1종), 75년(1종), 89년(1종), 92년(1종), 98년(1종)	
사후 101-150년		12(20%)	9(15%)	9(15%)	101년(1종), 103년(1종), 105년(1종), 105년(1종), 108년(1종), 114년(1종), 118년(1종), 132년(1종), 138년(1종)
사후 151-200년			3(5%)	3(5%)	152년(1종), 155년(1종), 158년(1종)
사후 201-250년		9(15%)	5(8.3%)	5(8.3%)	203년(1종), 207년(1종), 218년(1종), 242년(1종), 247년(1종)
사후 251-300년			4(6.7%)	4(6.7%)	253년(1종), 263년(1종), 273년(1종), 274년(1종)
사후 301-350년		3(5%)	1(1.7%)	1(1.7%)	307년(1종)
사후 351-400년			2(3.3%)	2(3.3%)	391년(1종), 395년(1종)
사후 401-450년		3(5%)	0(0%)	0(0%)	-
사후 451-500년			3(5%)	3(5%)	456년(1종), 471년(1종), 474년(1종)
사후 501-550년		2(3.3%)	2(3.3%)	2(3.3%)	505년(1종), 507년(1종)
계		60	100%		

경남 진주지역에서 간행된 60종의 목활자본 문집은 저자가 별세한 다음해부터 사후 507년까지 저자 사후 500여 년 사이에 간행되었다. 전체 문집 60종 가운데 과반인 31종(51.7%)이 사후 100년 이내에 간행되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저자 사후 101~200년 사이에 12종(20%)이 간행되었으며, 저자 사후 201~300년 사이에 9종(15%), 저자 사후 301~400년 사이와 401~500년 사이에 각 3종(5%)이 간행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저자 사후 505년과 507년에는 각 1종씩 2종이 간행되었다.

진주지역에서 목활자본 문집은 저자 사후 50년 이내에 가장 많은 23종(38.3%)이 간행되었고, 사후 10년 이내에는 8종(13.3%), 사후 11-20년 이내에 6종(10%) 등 사후 20년 이내에 14종(23.3%)이 간행되었다. 이로 미루어 전통시대 지식인이 별세하면 그 자손이 중심이 되어 시문이 유실되기 전에 수습하여 문집 간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진주에서 목활자본 문집이 1900년대 전반기에 대부분 간행되었고, 사후 50년 이내에 간행된 문집이 많은 것을 볼 때, 19세기에 영남 서부 지역에 새롭게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학문을 통해 가문을 일으키려는 인물이 많았으며, 강학활동에 힘써 영남 서부 지역에 많은 인재가 배출된<sup>64)</sup>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파악된다.

목활자본 문집의 저자 사후 문집 간행 소요 기간을 문집 유형별로 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진주지역 목활자본 문집 저자 사후 문집간행 소요기간: 문집 유형별

저자 사후 문집 간행 소요기간		종수	%	문집	유집	실기
사후 1-50년	사후 1-10년	8	13.3%	1년(2종), 3년(2종)	2년(2종), 3년(1종), 9년(1종)	
	사후 11-20년	6	10%	11년(1종), 12년(2종), 19년(1종)	15년(2종)	
	사후 21-30년	2	3.3%	24년(2종)		
	사후 31-40년	6	10%	31년(1종), 36년(1종), 39년(1종)	37년(1종), 40년(2종)	
	사후 41-50년	1	1.7%	42년(1종)		
<b>소계</b>		<b>23종</b>	<b>38.3%</b>	<b>14종(35.9%)</b>	<b>9종(52.9%)</b>	
사후 51-100년	8	13.3%	54년(1종), 62년(1종), 72년(1종), 73년(1종), 75년(1종), 89년(1종), 92년(1종)	98년(1종)		
<b>소계</b>				7종	1종	
사후 101-150년	9	15%	103년(1종), 105년(2종), 108년(1종), 114년(1종), 118년(1종), 138년(1종)	101년(1종), 132년(1종)		
<b>소계</b>				7종	2종	
사후 151-200년	3	5%	152년(1종), 155년(1종), 158년(1종)			
<b>소계</b>				3종		
사후 201-250년	5	8.3%	203년(1종), 207년(1종), 242년(1종), 247년(1종)	218년(1종)		
<b>소계</b>				4종	1종	
사후 251-300년	4	6.7%	274년(1종)		253년(1종), 263년(1종), 273년(1종)	
<b>소계</b>				1종	3종	
사후 301-350년	1	1.7%	307년(1종)			
<b>소계</b>				1종		
사후 351-400년	2	3.3%		391년(1종), 395년(1종)		
<b>소계</b>					2종	
사후 401-450년	0	0%				
사후 451-500년	3	5%	474년(1종)	471년(1종)	456년(1종)	
<b>소계</b>				1종	1종	1종
사후 501-550년	2	3.3%	505년(1종)	507년(1종)		
<b>소계</b>				1종	1종	
<b>계</b>		<b>37종</b>	<b>61.7%</b>	<b>25종(64.1%)</b>	<b>8종(47.1%)</b>	<b>4종(100%)</b>
<b>총계</b>		<b>60종</b>	<b>100%</b>	<b>39종</b>	<b>17종</b>	<b>4종</b>

진주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의 유형과 저자 사후 간행 소요기간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문집의 유형과 저자 사후 문집간행 소요기간을 조사·분석한 결과, 문집은 40종 가운데 저자 사후 50년 이내에 35.9%인 14종이, 유집은 17종 가운데 52.9%인 9종이 간행되었고, 실기는 1종도 간행되지 않았다. 실기는 저자 사후 250년 이후에 4종이 모두 간행되었다. 반면에 문집과 유집은 사후

64) 김봉곤, “嶺南地域 蘆沙學派의 成長과 門人 鄭載圭의 役割,” 『남명학연구』 제29권(2010. 6), 29.

10년 이내에 각 4종이 간행되었다. 문집은 저자 사후 505년까지, 유집은 저자 사후 507년까지 간행된 데 비해, 실기는 모두 사후 253년 이후부터 273년까지 3종, 저자 사후 456년 에 1종 간행되었다. 진주 지역의 경우, 저자 사후 문집 간행 소요기간에 있어서 문집과 유집은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반면에 실기는 4종 모두 저자 사후 250년이 경과한 이후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자 사후 기간이 많이 흘러 전쟁이나 화재, 일실 등으로 저자의 시문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실록이나 다른 문헌에서 고인에 대한 기사를 수집하고 연보를 편집하고 행장이나 묘갈명 등을 유명 인사에게 받아서 편집한 책이 실기이기 때문이다.

정이오(鄭以吾, 1347-1434)의 『교은선생문집(郊隱先生文集)』은 저자 사후 474년인 1908년과 저자 사후 505년인 1939년에 간행되었고, 밀양박씨 박강생(朴剛生, 1369-1422) 등의 유집 합집인 『응천세보(凝川世寶)』는 저자 사후 471년인 1893년과 저자 사후 507년인 1929년에 간행되었는데, 정이오와 박강생은 둘다 고려조에 출생한 인물이다.

저자 사후 456년인 1943년에 간행된 이맹현(1436-1487)의 『근재실기(覲齋實紀)』 2권1책은 진주에 살던 후손 재령이씨 이현호(李賢浩)와 이갑중(李甲鍾)이 각종 사료에 실려 있던 이맹현의 기록들을 모아서 16세손 이윤영(李允永)과 의논한 뒤 간행을 결정하였고, 이에 후손 이기환(李基煥)이 자금을 부담하여 완성했다. 이맹현은 재령 이씨(載寧李氏) 함안 입향조인 모은(茅隱) 이오(李午)의 손자로서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에서 태어났다. 1456년(세조 2) 생원시에 합격한 후 성균관 재생으로 있을 때부터 경학(經學)에 명성이 높았으며, 1460년(세조 6) 춘당대시에 장원하여 성균주부에 제수되었다. 1464년(세조 10) 『동국통감(東國通鑑)』 수찬(修撰)과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홍문관 부제학· 황해도 관찰사· 나주 목사 등을 역임한 후 부모 봉양을 위해 사직하였다. 1486년(성종 17) 어머니의 상에 이어 그다음 해 아버지 상기 중에 과도한 슬픔으로 생을 마쳤다.<sup>65)</sup>

### 3.3.3 발행소 분석

경남 진주지역에서 목활자본 문집의 발행처(소)가 문집의 저자, 혹은 문종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 간기나 판권지의 발행소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간기나 인기에는 누정이나 재실의 이름만 보이기도 하고, 간기가 없더라도 가끔 발문에 나타난 간행장소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판권지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소의 이름과 주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판권기에는 발행소(처)의 주소만 나타나므로 설립 주체와 건물의 용도 등 발행소의 성격은 『문화유적분포지도: 진주』, 『진주누정지』, 『조선환여승람: 진주』, 『진주지명사』 등을 통해 조사하였다.

65)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이맹현(李孟賢),” 디지털진주문화대전.

<표 7> 진주지역의 목활자본 문집 발행소

구분	간행 종수	간행소						
		발행소명	주소	용도	연도	인쇄자	간행 문집명(저자)	
재실 (齋室)	7	1	오방재(梧坊齋)	미천면 오방리 오방	진양하씨대중회 관리, 하륜 묘사	1897		창주선생유사(滄洲先生遺事, 하정)
		1	송곡재(松谷齋)	금곡면 송곡리	진양정씨 재사	1908		교은선생문집(郊隱先生文集, 정이오)
		1	유인재(惟人齋)	수곡면 원내리 원내	우재 강태수의 강학처	1910		목계일고(木溪逸藁, 강흔)
		1	용문재(龍門齋)	사봉면 봉곡리 초문마을	재령이씨 재실	1922	권재정(산청)	물재문집(勿齋文集, 이상돈)
		1	봉양재(鳳陽齋)	상봉동 911-11?	진양강씨 문증재실	1929		응천세보(凝川世寶, 박강생 등)
		1	남암재(南岩齋)	수곡면 사곡리 713		1931	강문식(진주)	매당집(梅堂集, 이수안)
		1	영남재(穎南齋)	금곡면 성산리 123		1939	권우용(산청)	교은선생문집(郊隱先生文集, 정이오)
누정 (樓亭)	7	1	계정(溪亭)	양전리(陽田里) 남쪽 시내 위	생원 정두(鄭斗)가 지음	1908		소은선생문집(素隱先生文集, 강식준)
		2	임간정(臨澗亭)	진양군 지수면 청원리	재령이씨 정자	1941		미암유고(薇庵遺稿, 이현갑)
						1943	강문식(진주)	근재선생실기(覲齋先生實記, 이명현)
		1	제광정(霽光亭)	진주시 금산면 가방리	방주 문국현의 서재	1923		방주문집(芳州文集, 문국현)
		1	태계정(台溪亭)	명석면 관지리	태계 하진(河澗)이 공부하던 곳	1933		죽오선생문집(竹塢先生文集, 하범운)
		1	광계정(光霽亭) 현재 '光風霽月亭'	동쪽 30리 상사리	재령이씨 성재(誠齋) 이예훈(李禮勛) 이 살던 곳	1936		만회당문집(晩悔堂文集, 이희석)
1	모로정(慕魯亭)	진성면 동산리 월정	함양박씨	1949		간암문집부록(艮岳文集附錄, 박태형, 1949)		
서원 (書院)	1	1	용강서당 (龍江書堂)	지수면 압사리 1265-2	동강 김우용 향사	1927		백호선생문집(白湖先生文集, 윤휴)
정사 (精舍)	1	1	미곡정사 (美谷精舍)			1900		남계집(南溪集, 신명구)
기타	1	1	세곡(世谷)			1899		국천선생난고(菊泉先生爛稿, 허박)
계	17							

진주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 60종 가운데 인기나 판권지가 있는 17종의 문집에 나타난 발행소를 분석하면, 재실(齋室) 7종, 누정(樓亭) 7종, 서원(書院) 1종, 정사(精舍) 1종, 기타 1종의 순이다. 진주지역 목활자본 문집이 주로 재실이나 누정에서 간행되었음을 볼 때, 목활자본 문집 간행은 후손을 중심으로 한 혈연공동체의 사업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재실(齋室)은 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집으로,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숙식과 제사음식 장만, 음복(飮福), 망제(望祭)를 지내는 곳이다. 진주에서는 선현의 제향공간인 재실에서 7종의 목활자본 문집이 간행되었다.

미천면 오방리의 오방재(梧坊齋)는 진강부원군 하시원, 진양부원군 하윤린, 진산부원군 하륜의 묘사를 위한 재실이다. 오방리 상촌마을 위에 하륜의 아버지인 하윤린의 신도비가 있고, 신도비

뒤쪽 야산은 조선 태종조의 영의정 하륜의 묘를 비롯해서 조부 하시원과 조모 진양정씨, 부친 하윤린과 모친 진양강씨의 묘가 있는 진양하씨의 문중 묘역이다.<sup>66)</sup> 이곳에서 하정의 『창주선생유사(滄洲先生遺事)』를 목활자로 1897년 12월에 인출하였다.

금곡면 송곡리의 분매산은 진주정씨가 대대로 묘를 쓰고 있는 곳으로 고려공신 文良公 정을보(鄭乙輔)와 정준(鄭遵) 이하 5대 묘소가 있다. 이와 가까이 있는 송곡재(松谷齋)는 후손들이 모여 시사를 지내며 선조의 덕업과 문장을 기리기 위한 재실이다.<sup>67)</sup> 이곳에서 1908년에 진주정씨 정이오의 『교은선생문집』을 간행하였다.

금곡면 성산리에 있는 영남재(潁南齋)에서는 1939년에 정이오의 후손인 정장현(鄭璋鉉)이 정이오의 『교은선생문집』을 간행하였다.

수곡면 원당리에 있는 유인재(惟人齋)는 강태수와 필수 형제의 서재인데 곽종석(郭鍾錫)에게 서재의 편액을 청하자 유인재라 이름하였다.<sup>68)</sup> 강혼의 문집인 『목계일고(木溪逸稿)』는 강혼의 매제(妹弟)인 관포 어득강이 편집한 원고가 유실된 후, 후손인 강태수·필수 등이 다시 수집해 1910년에 유인재(惟人齋)에서 목활자로 간행하였다.

용문재(龍門齋)는 사봉면 봉곡리 초문마을에 있는 재령이씨의 재실로 이곳에서 1911년에 이상돈(1841-1911)의 『물재문집(勿齋文集)』을 간행하였다. 문집에 실린 ‘謹次葛菴先生在淸源寓中韻 二首’나 ‘謹次密菴先生金臺山謁提學公先墓韻’ 등의 문장으로 보아 이상돈은 퇴계를 두둔하고 율곡을 비판한 갈암 이현일을 지지하였다. 이로써 진주에 사는 재령이씨가 학문적으로는 영남학파, 정치적으로는 남인의 입장을 견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돈의 선대 모은(茅隱) 이오(李午)는 정몽주와 신숙주의 문인으로 성균관진사였으나 고려가 망하자 신왕조에 벼슬하지 않고 함안 모곡리 고려동에 은거하였다. 이오의 장손인 근재(覲齋) 이맹현(李孟賢, 1436-1487)은 세조대에 출사하여 성종과 중종 대에 경학으로 이름이 드러났다. 11세조인 직장(直長)을 지낸 이간이 비로소 진주에 살게 되고 또한 여러 대로 벼슬을 했다. 물재 이상돈은 과거를 포기하고 서울 서대문밖 냉동(冷洞)으로 성재 허전을 찾아가 제자의 예를 갖추고 의심나는 것을 질정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sup>69)</sup> 이상돈은 기호남인인 성재 허전의 문인으로 복인 몰락 이후 우암 송시열의 기호학통을 이었던 진양하씨·해주정씨와 달리 영남학파의 남인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를 통해 진양하씨의 창주 후손이나 해주정씨의 정문부 후손이 송시열의 후손으로 서인인 송근수나 송병선, 최익현 등의 문하에 나아가는 것과 달리 재령이씨는 학문적으로 영남학파, 정치적으로 남인의 입장을 견지하며, 한말에는 기호남인인 성재 허전 문하로 나아감을 볼 수 있다.

지수면 압사리에 있는 용강서당(龍江書堂)에서는 윤휴(尹鑄)의 시문집인 『백호선생문집(白湖先

66) 경상대학교 박물관 편(2003), 224.

67) 성기운, “송곡재기,” 晋州文化院 편. 『晋州樓亭誌』 (진주: 晋州文化院, 1995), 158-159.

68) 郭鍾錫, “惟人齋記,” 晋州文化院 편(1995), 1176-1178.

69) 강동욱, “307. 물재 이상돈,” 『경남일보』, 2009.8.13.

<<http://www.gnews.co.kr/news/oldArticleView.html?idyno=224335>>, 2019.1.9. 접속.

生文集』이 1927년에 간행되었다. 윤희의 8대손인 윤신환의 발문에 의하면, “선생(윤희)의 유문(遺文)이 2백 년이 지난 이후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 문집을 간행하는 논의가 일어났을 때 서로 바라만 보며 누구도 출간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던 중 동강(東岡) 김 선생(金先生)의 후손인 김대림(金大林)이 강개(慷慨)하고 분발하여 그의 벗 이태문(李泰文)과 함께 힘과 마음을 다한 끝에 그것을 출간하게 되었다. 다만 오래도록 상자 속에 있는 동안 종이 갈라먹었으므로 빠지고 틀린 데가 없을 수 없었으니, 호남·영남의 선비들이 몇 달 동안 고정(考訂)하고서야 거의 완전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문집의 권수가 워낙 많아서 한꺼번에 출간할 수 없으므로 우선 원집(原集) 17권을 뽑아 활자본으로 출간하고 연보(年譜)는 목판본으로 간행하며, 경의설(經義說)은 훗날에 간행하도록 하였다”<sup>70)</sup>고 한다. 후손들이 화를 피하여 유고를 경상도 운문산 속에다 감추어 두었으며, 이때 간행한 원집은 유고 분량에 비하면 겨우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고 한다.<sup>71)</sup> 백호 윤희(1617-1680)는 원래 송시열, 송준길 등 서인계열과 가까웠는데, 기해예송 이후 틈이 벌어져 출사 이후에는 한강 정구의 제자였던 미수 허목과 함께 남인으로 활약하였다. 윤희와 학문적, 정치적 입장이 같았던, 한강 정구와 함께 퇴계의 제자인 동강 김우옹의 후손들이 적극 도와 용강서당에서 『백호선생문집』이 처음 세상에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멀리 넓게 볼 수 있도록 다락구조로 높게 지어진 누각과 경관이 수려하고 사방이 터진 곳에 지어진 정자는, 자연 속에서 여러 명이 또는 혼자서 풍류를 즐기며 정신수양의 장소로 활용되었던 건축물이다. 교육과 학습의 공간이며 선현 추모의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누정에서 목활자본 문집 7종이 간행되었다.

태계정(台溪亭)은 태계 하진(河潛, 1597-1658)이 벼슬에서 물러나와 지은 정자로서 진양하씨 집성촌인 명석면 관지리에 있다. 이 마을은 하진의 후손이 대대로 살고 있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 정자는 없어지고 이름만 전해 오다가 1911년에 사림들과 후손들이 협력하여 옛 자리에서 조금 올라간 곳에 태계정을 중건하고, 『태계집』도 판각하였다.<sup>72)</sup> 이곳에서 하범운(1792-1858)의 『죽오선생문집(竹塢先生文集)』이 1933년에 목활자로 인출되었다.

광풍제월정은 군 동쪽 40리쯤 사사리 제월대 말에 있으며, 재령이씨 성재(誠齋) 이예훈(李禮勛)이 살던 곳<sup>73)</sup>에 세운 정자이다. 이 정자는 이예훈 부자의 산소 아래에 위치하여 시사를 지내는 곳으로 사용된다. 이곳에서 후손인 이희석(李熙奭, 1814-1874)의 『만회당문집(晩悔堂文集)』 3권1책이 1936년에 활자로 간행되었음을 권말의 “세병자춘진주광제정활인(歲丙子春晉州光霽亭活印)”이라는 인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책은 1936년 이희석의 손자 이현영(李鉉瑩)이 편집하여 목활자로 인출되었으며, 서(書)에는 스승인 유태좌·유치명에게 문안을 올린 편지와 판서 이원조(李源祚)에게 이현일(李玄逸)의 신원(伸冤)을 위하여 힘쓴 것을 감사하는 내용의 편지가 있다. 이예훈이 퇴계의

70) 윤신환(尹臣煥), “백호윤선생문집발(白湖尹先生文集跋),” 『백호전서』 부록5;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380B\\_0520\\_020\\_0010](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380B_0520_020_0010)>, 2019.1.9. 접속.

71) 류석우(柳奭佑), “백호윤선생문집서(白湖尹先生文集序),” 참조.

72)晉州文化院, 『晉州地名史』 (진주: 진주문화원, 1996), 332.

73) 진주문화원(2006), 105.

영남학파인 유태좌와 정재 유치명 문인이고 이현일의 신원을 위해 힘쓴 것에 감사하는 것을 볼 때 학문적으로는 퇴계의 영남학파, 정치적으로는 남인의 입장을 견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임간정(臨澗亭)은 재령이씨 집성촌인 지수면 청원리에 있는 재령이씨의 정자로서 이현만이 학문을 연마하고 심신을 수양하기 위해 세웠다.<sup>74)</sup> 이 정자에서 이 마을 태생인 재령이씨 이현갑(李鉉甲, 1852-1926)의 『미암유고(薇庵遺稿)』를 1941년에 인출하고, 이맹현의 『근재선생실기(覲齋先生實記)』를 1943년에 인출하였다.

모로정(慕魯亭)은 진성면의 월아산 아래 용고미촌(龍顧尾村) 뒤에 있으며, 함양박씨인 간암(艮嶽) 박태형(朴泰亨, 1864-1925)이 강학하던 곳이다.<sup>75)</sup> 이곳에서 간암 박태형의 『간암문집부록』 2권 1책이 1949년에 목활자로 인출되었다. 권1에 ‘간암기(艮嶽記)’, ‘모로정중수기(慕魯亭重修記)’, ‘모로정중건기(慕魯亭重建記)’ 등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모로정을 중건하고, 이곳에서 『간암문집』과 『간암문집부록』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진주에서 목활자본 문집이 대부분 재실이나 정자에서 인출되었던 것으로 보아 목활자본 문집 간행사업은 후손을 중심으로 선조의 학문을 현창하기 위한 혈연공동체의 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 3.3.4 인쇄자

경남 진주지역에서 목활자본 문집을 인쇄한 각수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판권기의 인쇄자, 즉 각수를 조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진주지역의 목활자본 문집 인쇄자 분석

지역(인원)	인쇄자명	종수	주소	간행연도	서명(저자)
산청 (2인)	권재정(權載正)	1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84	1922	물재문집(勿齋文集, 이상돈)
	권우용(權宇容)	1	산청군 신등면 양전리 785	1939	교은선생문집(郊隱先生文集, 정이오)
진주 (1인)	강문식(姜文植)	2	진주군 미천면 월암리 615	1931	매당집(梅堂集, 이수안)
				1943	근재선생실기(覲齋先生實記, 이맹현)
2지역		4			

위 <표 8>에서 보듯이 진주지역의 목활자본 문집 60종 가운데 권말의 판권지가 있는 책은 4종으로 인쇄자, 즉 각수에 대한 정보는 산청의 권재정과 권우용, 진주의 강문식만 파악할 수 있었다.

74) 한국학중앙연구원, “임간정(臨澗亭),” 디지털진주문화대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632435&cid=51942&categoryId=54825>>. 2019.1.25. 접속.  
 75) 한국학중앙연구원, “진주 선비의 멋을 누정에서 만나다,” 향토문화전자대전, <[http://jinju.grandculture.net/Contents/Contents?dataType=01&contents\\_id=GC00403217&isTreeSpread=Y](http://jinju.grandculture.net/Contents/Contents?dataType=01&contents_id=GC00403217&isTreeSpread=Y)>. 2019.1.25. 접속.

### 3.4 문집의 형태사항

#### 3.4.1 권책수

경남 진주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의 형태사항 가운데 권책수가 문집의 유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기 위해 문집 60종의 권책수와 문집의 유형, 즉 문집·유집·실기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문집 권책수와 문집 유형과의 관계

책수	권책수	전체	문집	유집	실기	비고(서명)
		종수	종수	종수	종수	
1책	不分卷 1책	3	1			금계선생문집(琴溪先生文集)
				1		응천세보(凝川世寶)
					1	감호공실적(鑑湖公實蹟)
	2권1책	15	9	1		각포집(覺圃集), 교은선생문집(郊隱先生文集, 2종), 놀암선생문집(訥菴先生文集), 단사유고(丹砂遺稿), 송대선생문집(松臺先生文集), 일수현집(一樹軒集), 황사집(篁沙集), 간암문집부록(良岳文集附錄), 매은문집(梅隱文集)
				4		극제유고(克齋遺稿), 목계선생일고(木溪先生逸藁), 일현유고(一軒遺稿), 신암유고(慎菴遺稿)
	3권1책	14			1	근재선생실기(覲齋先生實記)
			6			국담문집(菊潭文集), 만회당문집(晩梅堂文集), 성계집(惺溪集), 습정재문집(習靜齋文集), 행정문집(杏亭文集), 사무재시고(四無齋詩稿)
				6		국포유고(菊圃遺稿), 만회유고(晩梅遺稿), 미암유고(薇庵遺稿), 우산유고(愚山遺稿), 전천유고(前川遺藁), 회곡유집(晦谷遺集)
	4권1책	3	2		2	생원공실기(生員公實紀), 창주선생유사(滄洲先生遺事)
	5권1책	1	1			방주문집(芳州文集), 역헌문집(櫟軒文集)
5권1책	1		1		학고유고(鶴阜遺稿)	
5권1책	1	1			엽호문집(濂湖文集)	
<b>소계</b>	<b>36</b>	<b>19</b>	<b>13</b>	<b>4</b>		
2책	2권2책	1	1			지와문집(芝窩文集)
	3권2책	1	1			행정선생문집(杏亭先生文集)
	4권2책	8	7			경원재집(警弦齋集), 남계집(南溪集), 방산집(防山集), 소은선생문집(素隱先生文集), 아담문집(我丹文集), 조은선생문집(鈞隱先生文集), 죽오선생문집(竹塢先生文集), 응천세보(凝川世寶)
				1		
	5권2책	5	3			물재문집(勿齋文集)
	6권2책	2	1			허암선생유집(虛庵先生遺集)
				1		
<b>소계</b>	<b>17</b>	<b>13</b>	<b>4</b>	<b>0</b>		
3책	6권3책	4	4			매당집(梅堂集), 명암집(明庵集), 오산선생문집(吾山先生文集), 창사집(昌舍集)
4책	8권4책	1	1			놀암선생문집(訥菴先生文集)
5책	11권5책	1	1			간암문집(良岳文集)
17책	30권17책	1	1			백호선생문집(白湖先生文集)
<b>소계</b>	<b>7</b>	<b>7</b>	<b>0</b>	<b>0</b>		
계		60	39	17	4	

위 <표 9>에서 보듯이 진주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60종의 권책수는 불분권1책부터 30권17책까지 매우 다양하다. 전체 60종 가운데 1책이 36종(60%), 2책이 17종(28.3%), 3책은 4종(6.7%), 4책·5책·17책은 각 1종(1.7%)이다. 전체 60종 중에서 53종(88.3%)이 1~2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책 이상의 거질은 30권17책으로 이루어진 윤희(尹鑄, 1617-1680)의 『백호선생문집(白湖先生文集)』 1종뿐이다. 『백호선생문집』을 인출할 당시, 문집의 권수가 워낙 많아서 비용상 한꺼번에 출간할 수 없으므로 우선 원집(原集) 17권을 뽑아 목활자로 인출하고, 연보(年譜)는 목판본으로 간행하였으며, 경의설(經義說)은 훗날에 간행하도록 하였다.<sup>76)</sup> 목활자로 인출한 17권은 유고 분량에 비하면 겨우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sup>77)</sup>고 한다. 윤희가 진주 출신 학자가 아니라는 사실로 보아 진주 출신 목활자본 문집의 저자는 학문이 높은 대학자가 많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문집 유형별로 보면, 문집 39종 가운데 절반인 19종(48.7%)이 1책이고, 13종(32.5%)은 2책이며, 4종이 3책이고, 4책·5책·17책은 각 1종(2.5%)이다. 유집이나 실기는 3책 이상이 1종도 없지만, 문집은 3책 이상이 7종(17.9%)이다. 유집은 전체 17종 가운데 13종(76.5%)이 1책이고, 2책은 4종(23.5%)이다. 실기는 4종 모두가 1책이다. 유집은 저자가 남긴 시문이 적은 경우에, 실기는 저자가 남긴 시문이 거의 없는 경우에 여러 자료에서 저자의 행적에 관한 글을 모아서 편찬하기 때문에 책수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 3.4.2 판식

마지막으로 진주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 60종이 간행 시기에 따른 판식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집이 처음 간행된 1750년대부터 50년 단위로 판식의 형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진주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시기와 판식과의 관계 분석

간행연대	종수	변란(종수)	계선(종수)	행자수(종수)	어미(종수)
1751-1800	1	四周雙邊(1)	有界(1)	10行 20字(1)	上下內向3葉花紋魚尾(1)
1801-1850	1	四周單邊(1)	有界(1)	10行 20字(1)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1)
1851-1900	9	四周單邊(7) 四周雙邊(2)	有界(9)	10行 19字(1) 10行 20字(2) 10行 21字(1) 10行 22字(4) 11行 24字(1)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9)

76) 윤신환(尹臣煥), “백호윤선생문집발(白湖尹先生文集跋),” 『백호전서』 부록5;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380B\\_0520\\_020\\_0010](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380B_0520_020_0010)>. 2019.2.6. 접속.

77) 류석우(柳奭佑), “백호윤선생문집서(白湖尹先生文集序),” 『백호전서』 부록5.

간행연대	종수	변란(종수)	계선(종수)	행자수(종수)	어미(종수)
1901-1950	43	四周單邊(20) 四周雙邊(23)	有界(43)	9행 20자(1) 10행 17자(1) 10행 18자(3) 10행 19자(1) 10행 20자(24) 10행 21자(9) 10행 22자(4)	內向上二葉下一葉花紋魚尾(4) 上白魚尾(1) 上二葉花紋魚尾(9) 上二葉花紋魚尾,下黑魚尾(1) 上下內向白魚尾(2)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24)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1) 上下內向黑魚尾(1)
1951-2000	6	四周單邊(1) 四周雙邊(5)	有界(5)	10행 20자(6)	上二葉花紋魚尾(2)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3) 上下向二葉花紋魚尾(1)
계	60				

위 <표 10>에서 보듯이, 진주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60종의 판식을 간행시기에 따라 구분해 보면, 1700년대 후반기에는 사주쌍변, 유계, 10行 20字, 上下內向3葉花紋魚尾이고, 1800년대 전반기에는 사주단변, 유계, 10行 20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이다. 1800년대 후반기에는 사주단변, 유계, 10行 22字,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가 다수 보이고, 1900년대 전반기에는 사주쌍변, 유계, 10行 20字,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1900년대 후반기에는 사주쌍변, 유계, 10行 20字이고, 상이엽화문어미와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가 혼재한다. 사주변란의 추이를 보면, 1800년대 후반기에는 사주단변(7), 사주쌍변(2)이고, 1900년대 전반기에는 사주단변(20), 사주쌍변(23)이며, 1900년대 후반기에는 사주단변(1), 사주쌍변(5)으로 19세기에는 사주단변이 많았으나, 20세기 전반기에 들어서는 사주쌍변이 비교우위를 점하다가 20세기 후반기에는 절대 우위를 차지함을 볼 수 있다.

#### 4.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진주지역에서 간행된 60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대상으로 문집 간행의 구체적인 양상과 출판문화사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문집의 유형, 저자사항, 간행사항, 형태사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1) 문집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문집 60종 가운데 문집은 39종(65%), 유집은 17종(28.3%), 실기는 4종(6.7%)이다. 57종(95%)이 1인의 시문으로 이루어진 별집이고, 2인 이상의 시문으로 이루어진 합집은 3종이며, 시로만 이루어진 시집은 1종뿐이었다.

2) 목활자본 문집 저자 57인의 출생연도를 분석하면,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계속 증가하여 18세기 출생자가 13인(23%), 19세기 출생자가 25인(44%)으로서 18세기 이후 출생자가 38인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한다.

3) 문집 저자의 성관(姓貫)을 분석하면, 문집을 간행한 27개 성씨 가운데 진양하씨가 가장 많은 13종의 문집을 간행하였고, 다음으로 재령이씨가 7종, 진양강씨가 5종, 진양정씨와 해주정씨가 각 4종, 김해허씨가 3종, 밀양박씨·함양박씨·전주최씨가 각 2종, 능성구씨를 포함한 18개 성씨가 각 1종씩이었다. 진주에서 목활자본 문집을 다수 간행한 단목의 창주 후손가와 해주 정씨의 농포 정문부 후손가는 송시열과 송준길의 문묘 종사를 주도하면서 북인 몰락 이후 집권세력인 기호학파의 노론과 유대를 강화하고 문인이 되어 노론으로 변모하였다. 반면에 재령이씨는 퇴계를 두둔하고 율곡을 비판했던 방조 갈암 이현일의 학문적 입장을 지지하면서 영남학파의 남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4)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은 189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60년 동안 활발하다가 1950년 이후 대폭 줄어들었다. 189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60년 동안에 전체 60종의 문집 가운데 약 82%에 달하는 49종이 간행된 것을 볼 때, 진주지역에서는 조선조 말기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사회적 격변기에 전통지식인 집단이 자기 문중의 학문을 선양하고 전통적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목활자본 문집을 활발하게 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이 시기에 지식과 정보의 유통수단으로 목판인쇄에 비해 저비용으로 단기간에 인출이 가능한 목활자 인쇄가 선호되고 대중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저자의 사후 문집 간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분석하면, 문집의 38%가 저자 사후 50년 이내에 간행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문집과 유집은 사후 10년 이내에 가장 많이 간행되었지만, 실기는 저자 사후 250년이 지나서 간행되었다.

6) 문집의 간행은 현조의 제향공간인 재실이나 선현 추모와 선현의 학습·교육공간이던 누정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목활자본 문집 간행이 주로 혈연공동체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7) 문집 권말의 판권기를 통해 목활자본 인쇄자, 즉 각수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진주에서는 3명의 각수에 대한 정보를 4종의 문집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8) 목활자본 문집의 권책수를 보면, 88% 이상이 1-2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10책 이상의 거질은 진주 출신이 아닌 윤희의 『백호선생문집』이 유일한 것으로 미루어 진주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저자는 전국 수준의 대학자라기보다는 주로 지역에서 활동한 선비라고 할 수 있다.

9) 목활자본 문집의 판식을 살펴보면 1800년대에는 사주단변, 유계, 10항 20자, 상하내향이엽화문 어미가 다수이고, 1900년대 전반기에는 사주쌍변과 사주단변이 혼재하다가 1900년대 후반기에는 사주쌍변이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

<참고문헌>

- 『新增東國輿地勝覽』. 『大東地志』.
- 강정화. “晉州 道統祠의 출판 활동과 그 의의.” 『東洋漢文學研究』 제43집(2016. 2). 5-29.
-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편. 『진주권 지역의 고문헌』. 진주: 도서출판 열매, 2004.
- 경상대학교박물관 편. 『文化遺蹟分布地圖: 진주시』. 진주: 진주시·경상대학교박물관, 2003.
- 김봉곤. “嶺南地域 蘆沙學派의 成長과 門人 鄭載圭의 役割.” 『남명학연구』 제29권(2010. 6). 29-75.
- 송정숙. “경남 산청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양상.” 『書誌學研究』 제68집(2016. 12). 201-245.
- 송정숙. “경남 합천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양상.” 『書誌學研究』. 제73집(2018. 3). 205-246.
- 이노우에 스스무[井上進] 지음. 이동철, 장원철, 이정희 옮김. 『중국출판문화사』. 서울: 민음사, 2013.
- 晉州文化院 편. 『晉州樓亭誌』. 진주: 晉州文化院, 1995.
- 진주문화원. 『조선환여승람(朝鮮輿輿勝覽): 진주』. 진주: 진주문화원, 2006.
- 晉州文化院. 『晉州地名史』. 진주: 진주문화원, 1996.
- 진주시청. 『진주의 문화유산』. 진주: 진주시청, 2009.
- 최석기 외. 『19세기 경상우도 학자들 上』. 서울: 보고사, 2012.
- 최석기 외. 『19세기 경상우도 학자들 中』. 서울: 보고사, 2014.
- 최완기. 『한국의 서원』. 서울: 대원사, 1991.
- 한국국학진흥원 기초학문육성사업단. 『경남지역의 목판자료(2)』.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9.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 경남도청. <<https://www.gyeongnam.go.kr/>>.
- 경남일보. <<http://www.gnnews.co.kr/>>.
- 경상대학교 문천각. 남명학교문헌시스템. <[http://nmh.gnu.ac.kr](http://nmh.gnu.ac.kr/)>.
-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http://kostma.korea.ac.kr/)>.
- 국립진주박물관. <<https://jinju.museum.go.kr/html/kr/>>.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home/main.do?siteCd=KYU>>.
- 진주시청. <<http://www.jinju.go.kr/main/>>.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www.itkc.or.kr/itkc/Index.jsp>>.
-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http://www.ugyo.net>>.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최원석. “진주 도통사 소장 공자·주자 영정, 경상대 도서관에 영구 기탁.” CNB NEWS. 2018.12.19.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94632>>.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Suk-Ki et al. 2012. *Scholars of the Nineteenth Century in the Right side of Gyeongsang-do Province*. Seoul: Bogosa.
- Choi, Wan-Ki. 1991. *The Seowon of Korea*. Seoul: Daewonsa.
-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Museum. 2003. *Cultural Heritage Distribution Site: Jinju City*. Jinju: Jinju City &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Museum.
-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Gyeongnam Culture ed. 2004. *Rare Books in the Jinju area*. Jinju: Book publisher Yeolmae.
- Inoue, Suzuki. Translated by Lee, Dong-cheol, Jang, Won-cheol and Lee, Jung-hee. 2013. *Chinese Publishing Culture History*. Seoul: Minumsa.
- Jinju City Hall. 2009. *Cultural heritage of Jinju*. Jinju: Jinju City Hall.
- Jinju Cultural Institute ed. 1995. *A Collection of Records on Pavilion in the Jinju Area*. Jinju: Jinju Cultural Institute.
- Jinju Cultural Institute. 1996. *The History of Place Name of Jinju*. Jinju: Jinju Cultural Institute
- Jinju Cultural Institute. 2006. *Joseon Hwanyeo Seung Ram: Jinju*. Jinju: Jinju Cultural Institute.
- Kang, Jeong-hwa. 2016. “A Study on the Publication Activities of Dotongsa of Jinju and Their Meanings.” *Dongyang Studies in Korean Classics*, 43: 5-28.
- Kim, Bong-Gon. 2010. “The Rise of Nohsa Scholars’ Faction in Youngnam Region and Nohsa’s Disciple Jeong Jae Gyu’s Role.” *The Nammyonghak Study*, 29: 29-75.
- Song, Jung-Sook. 2016.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ation of Collections of Works Printed by Wooden Movable-type at Sancheong-gun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Korea.”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68: 201-245.
- Song, Jung-Sook. 2018.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ation of Collections of Works Printed by Wooden Movable-type at Hapcheon area, Gyeongsangnam-do Province Korea.”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3: 205-246.
-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Basic Science Education Project. 2009. *Woodblock-printed Materials in Gyeongnam Provincial area 2*. Andong: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 Center for Overseas Resources on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http://kostma.korea.ac.kr>>.  
Department of Archives and Special Collections: Moon Cheon Gak.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ttp://nmh.gnu.ac.kr>>.  
G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https://www.gyeongnam.go.kr/>>.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Korean Classics Portal. <<http://www.itkc.or.kr/itkc/Index.jsp>>.  
Jinju City Hall. <<http://www.jinju.go.kr/main/>>.  
Jinju National Museum. <<https://jinju.museum.go.kr/html/k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http://kyujanggak.snu.ac.kr/home/main.do?siteCd=KYU>>.  
Kyungnam Daily. <<http://www.gnnews.co.kr/>>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Korean History Database Portal. <<http://www.koreanhistory.or.kr>>.  
National Library of Korea. KORCIS(Korean Old and Rare Collection Information System). <<https://www.nl.go.kr/korci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General information on Korean historical figures TOTAL DATABASE. <<http://people.aks.ac.kr/index.ak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Digital Local Culture Encyclopedia of Korea. <<http://www.grandculture.ne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http://encykorea.aks.ac.kr>>.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Ugyonet. <<http://www.ugyo.net>>.